

逸波閣書報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 卷頭詩 }

* 업을 이어서 *
 닦 왔는
 참 내일이 왔음은
 삶의
 오늘이 왔으므로

여기 이제
 업을 이은 열파의 나뭇잎은
 살아 뛰던
 앞의 지성인이 왔음인저!

자랑스런 전통
 손색 없는 업을 딛고
 뛰어난
 문화까지 잔뜩 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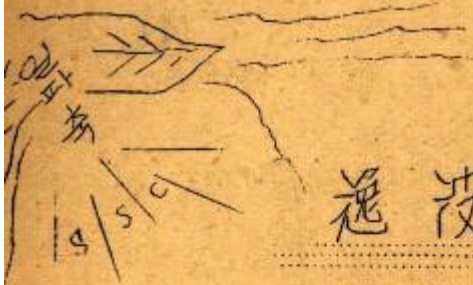
보배로이 퍼 내니

희망찬

그 앞편에
 광명 줄 인저

(康允)





逸 菴 學 報

第 一 輯 目 次

卷頭言	副校長	鄭弘燮(5)
卷頭詩		李康允(1)
七期生을 보내며	担 任	金鎮基(6)
會員여러분에게	會 長	屈光典(8)
白輩에게 주는 글	同窓會長	宋夏浩(9)
逸菴의 벗들이여	副會長	李康允(11)

論 壇	내가 아는 수려함과 그 개척	洪斗杓(16)
	宗敎와 科學	白相基(32)
	20代의 광변	徐長玉(43)
	네 자신을 알라	金養鎮(25)

詩	푸른네온	金謙善(53)	삶과 죽음	金秀敏(56)
	가마귀	金養鎮(39)	無 題	"人" 生(55)
	금모래	洪斗杓(53)	海 辺	人 生(52)
	12 月	丁 生(50)	三 題	丁 生(51)

여조숙 조각들의 마음 孫相龍(60)

特別寄稿: 諸書의 諸世代 申鉉經(13)

	壽과 정(情)	남승우(62)
	歸路에다	S 영(63)
	발 비	김영희(68)
	利少	차익채(69)
	惡愛의 三分間	安基錫(68)

	路傍草의 辨	吳聖均(82)
	보고픈 연애에	李龍鼎(76)
	丁 애에	S ² C 生(79)

四 **五** **六** **七** (75)

紀行支 嶺山訓誨新에 자다 朴익채(89)

《回顧支》 戊戌의 凹凸 閔兩貞(85)

龜波로타리 (34)

統一의 實學園에다 角銀出(77)

님 만 이 安基錫(105)

..... 金謙善(109)

..... (31~)

..... (1177)

..... (120)

(포지 閉 丙 高)

卷頭言

(5)

副校長 鄭泓變

꽃피고 싹트는 봄을 맞은 오늘 여러분을 보내며 본 학보
에의 귀한 머리를 빌어 인사의 밤을 쓰개원점 마음 같이
기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년의 세월을 두고 겪어온 풍이 하되지않
아 우리나라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위치에 서게
됨을 높이 기립니다.

더우기 실제 체험을 하지않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못할 가
준 고난속에서 끊임없는 애내와 노력의 결실으로 화한 여러
분담이 기바라는 바가 적을수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락
은 금일의 그 기상을 변치말고 초창기에 노여있는 속기문화
의 진전을 위하여 일련에서 보다 근면한 생활을 통하여 더
많이 알아서 수감없이 일 할수있는 속기사가 되어 주길바랍
니다.

정을 빌라라고 나서는 여러분 앞날에 오늘 보다 이상적인
삶이 영위 되기를 빌고 또 믿으며 간담려 인사에 대합니다.

— 長學院事務次長 —

七期生을 보내면서

担任 金 鎮 基

花信 질오던 지난 戊戌四月 七拾余名의 여러분을 맞아 春風秋雨 어느듯 一似星霜이 지나 情은 여러분을 내보내
게 되니 担任으로서 感懷동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完全 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하나의 速記能力者로서
여러분을 社會에 輩出하는 이 多量에 어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年富力強한 靑年이니 偉대한
抱負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百步를 目標로 하여 突進 하는 것 보다 4步 進歩를 目
標로 하여 恒常 끊임 없는 自我批評과 修養으로써 自己
를 向上 시켜야 할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나친 抱負
를 量에 許입은 여러분이 가질수 있는 最大의 抱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門前乞食하는 乞子 더러 『장안을 謁令 할 수 있는 身分이
되면 무엇부러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一語之下에 온 장안
의 개를 門前로 曳이고, 유유한 마음으로 마을 풀고 乞
食을 해보겠다고, 答 하였다. 矣.

온 장안을 門前로 하겠다는 것이 역시 乞食 하는 것을 벗
어나지 못 하니 사람이란 自己의 能力, 環境을 벗어나

(7)

思考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세간의想像에는 限度가 있으며 自己의
품은 곧은 다 達成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기에 奮發은 不可能이란 自己 辭典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靑春입니다 몇백번 失敗 하기도 오히려 再起하여
成功 할수 있는 機會가 있는것입니다.

비록 優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나 速記만
이 여러분의 全部 일수는 없으니 보다더 큰 뜻을 품고
一年間 닦았던 忍耐 奮發 敢闘 힘의 精神으로 勇往邁進
하여 大望을 達成 하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정종>

자기가 재야 勤業을 사랑하라 士나

자기가 사랑라자면 勤業 재야 勤業을 ----

— N 마코프스키 —



(8)

會員 여러분께 금 金光典

森羅萬象이 새삼을 자랑하고 希望찬 大計를 따는 불철
에 會員各位께 人事의 말씀을 해주시 遂及의 出産을 보
탁하고 또 늦게나마 完成을 보게되어 紙面媒介의 글을
드리게되점 기쁘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먼저 卒業의 榮譽
을 누리도록 指導해주시 先生들과 先輩들께 고마운 詞
를 表합니다. 回顧하면 지나간 一年이란 歲月이 如何
無意味한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보다는 更生舞臺에서
남보다 單단자치라도 더 有利한 生存競爭의 武器를 갖게
되었다는것에서 덕이나 感銘같은 한 도막으로 生覺하는것
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作別을 하는것은 오로지 같은 길
이든 한 사람으로써 남기려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一生中
의 한 階라는 時節의 모든것을 바쳐온 大韓連親文化院
展에 壽典하도록 最善을 다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少年
學生會 總長도 여러가지의 重要한 點이 있는것은 여러분
의 일꾼이라기보다 何人 自身의 手力으로 돌리고 넓은
雅量으로 海容하시와 以後에도 常인 善은 常存하시며 많
은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헤어지게되는 會
員여러분의 健康과 母校의 發展을 빌면서 人事에 加參합
니다.

4292. 3.

特別導稿

後輩에게 부치는 글

— 同窓會長 宋貞浩 —

“忍耐,” “努力,”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귀가 아프게 듣는 先生先生들의 敎訓이요 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忍耐과 努力이란 敎訓을 잘 받은 보람 있어, 한 사람의 速記人으로서 勇躍 社會에 進出할 榮光을 맞는데 먼저 祝福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란 차고, 싸고, 괴로운 곳임을 다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긴 一年間 조금은 屈하지 않고 速記學이란 어려운 學問을 習得하였습니다. 그동안 머로는 倦怠도 있었을 것이고 주저함에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려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課程은 非但 여러분만이 겪은 苦衷이 아니고 速記를 배우는 사람이면 다 같은 體驗하는 事實이라 勿드 여기할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一年間 갈려온 그 師長을 가지고 人生에 犧牲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學校에 다닐 때는 자신이 무슨 소그리만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곧 그것은 謝過나 구경으로 「과-박」 될 수 있었습니다만 社會란 그런 틀이 없다는 것이여 그 잘못은 곧 己身이 저야하는 責任이 되는 것입니다.

(10)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恒常 恒常 恒常 하고 전하여 末日의 目標로 向해 꾸준히 進進하는 것 만이 成功의 捷徑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自身에 對한 지나친 自賤心을 갖지 말고 恒常 배우고 工夫하고 探究하여 오늘날을 爲해 사는 것 보단 末日을 爲해 未來를 爲해 살아달라고 부락하면서 이 拙稿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幸甚幸甚입니다.

{ 오가다 [은] }
○

진리를 사색에서 찾으라 眞理가 眞理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달을 보지 싶거든 연못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 Persa의 禮會 :



逸波의 벗들이여!

李康允

會者定難라는 옛 語句가 머
리속을 스며들어가하면 胸襟 寬
속한 곳에서는 精難의 深々한
心懷가 가득 차음을 누를길
없습니다. 相難精別하고 나면
明月幾相思라고 밖에는 더 이
상 鈍筆을 끌리지 못하겠는
衷情의 울상이란 짐을 풀이
없구려!

아무튼 現在보다는 理想的인
素白의 生活을 嚮往하려는 丁
程으로 알고 저승리 스스로의
哀傷的인 遺念을 慰勞라도 하
고싶은것이 또 허나의 心的
枯竭 이라고나 할는지요.....
이제 막상 逸波의 門을 두드
린지 一箇年을 지나고 떠나야
만하는 아니 쫓기어나기만하는

牙齶가 되고보니 지난날의
가치가지가 하나의 스크린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가가거겨 ---'에서 出發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터 변
씨 ---

그之向 技術 向上에 直 向
接的으로 勞苦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指導 해주신 先生
선생들을 비롯하여 先輩 諸位
께 삼가 感謝의 深々한 所
情을 表하는바이며 앞으로
끝지않는 편답이 啓示 주실
것을 넌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수있을 一箇 堤題을 두고
同苦同深라는 中에 들고 웃
고 부벼대던 學生會 會員

(12)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새삼스러운 感이 있습니다
 는 有容 有德 有容 不肖人에게
 多面으로의 힘을 들구어 주
 시고 잘못이 있으면 물어
 주시며 (별로 없었지만)
 좋은 뜻이 있을때면 기리려
 하셨던 德으로 뭇 誤誤
 이 지내게 된것을 汗平
 잊지 않겠으며 내려주신 恩
 림을 거둔살으며 하오니 作
 別處에라도 倦前의 指導 翰
 捷이 있으시기 尙望하여 必
 禱하는 바이고 지난날의 모
 든 허물을 寬諒하실줄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補佐가 되어 드리지
 못한 才能의 所謂 副會長은
 이쁘고 本 學生會 발전에
 全力하신 會長 金光典 任 前
 에 感謝합니다.

逸波의 벗들! 健氣히 ...
 그리고 잊지 마시오!

(4292.3)

<副會長>

잊지
 마시오!



讀書와 젊은 세대

申 鉉經

그것은悠久히 흘러 가지만 그 時代的 区分에 所有者
 即 그 部分的인 그 史의 創造者는 언제나 当代의 젊은이들
 로 交替된다. 이 젊은이들은 그 史를 빛내기도 하고 그 史의 汚
 穢를 남기기도 한다. 그것은 그들이 当代 그 史의 運命을
 双肩에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社會的 存在는 누
 구 보다도 比重이 큰 것이며 그러기에 過去는 過去로서,
 現在는 現在로서, 未來는 未來로서 그 젊은이들이 그때 社
 會의 重疊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任務
 를 뜻 깊게 克遂하여야 할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行動을 해 나가야 할 것이요, 올바른 判斷
 과 이에 따르는 適切한 行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다. 배운다는것, 知를 追求하고 良識을 기른
 다는것은 우리들 社會生活의 錯雜한 事件과 牽連되어 가
 며 우리들의 日常生活을 通하여 또한 平生을 通하여 不斷
 히 連續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젊은이들의 社會的 比重이 큰것은 勿論이거니와
 個人의 一生을 생각하여 본다-하더라도 그 一生을 支配
 하는 時期는 역시 젊은 時期에 달려 있다는것을 우리들

(14)

은 잘 알수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이와같이 훌륭한 아름다운 存在이니 이 이상 말하기 새삼스러워진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자신의 位置를 自각하고 效果的으로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家庭에서 학교에서 社會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 밖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書籍을 相對로 배우는 讀書라는 方法이다. 이것이야말로 언제나 또 어디서나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자신의 노력에 依하여 자신을 教育할수있는 하나의 方法이다.

우리를 특히 젊은 세대들은 情熱에 넘치는 無限한 希望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人生의 그리고 젊은이의 貴重하고도 高貴한 그리고 未來를 預見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万若에 이와같은 希望이 喪失 될 경우를 상상한다면 그 얼마나 暗澹과 寂漠을 느낄 것인가! 우리들은 이 情熱과 希望을 부등켜 안고 家庭에서나 學校에서나 그리고 社會에서 見聞을 넓히고 또 알하고 나머지 時間이 있다면 寸暇를 利用하여 讀書를 通하여 良識을 넓히는 것이 個人을 爲하여서나 家庭, 社會, 國家를 爲하여 가장 期待되는 義務를 強調하고 있다. 일찌기 朱子는 一箇의 詩를 誦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樹한 바 있

으니 詩

『少年易老 世難成 』 『未覺池塘 春草夢』

一寸光陰 不可輕 』 『階前梧葉 已秋聲』

이 詩句의 意味는 青春은 轉기 쉬우며 배움은 이루기 어려운 것이니 비록 짧은 時間일지라도 輕視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지이다. 아직 幼穉가의 한낱 봄날의 꿈이 깨이기도 前에 벌써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고 가을 消息을 傳하여 준다는 卽 歲月은 덧 없이 흘러만 간다는 것을 表現한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 깊이 간직 하게 하여 주는 先賢의 教訓이라!

寸暇도 가며이 말하는 이 教訓 社會的인 期待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 젊은 世代는 젊은이의 자량인 修養을 기울여 배우자느 것이다. 그리고 배우기 爲해서이든 修養을 爲해서이든 受驗準備이든 單純한 趣味이든 娛樂이든 간에 좋다. 眞實으로서 배움이 있을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精神的 糧食을 마련 될 것이니 人生을 理解하고 보람있는 生活를 營爲하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現在는 現在대로 未來는 未來대로 다 같이 젊은이들의 힘이니 젊은이들은 언제나 그 時代의 社會的 要請에 應하고 負擔된 使命을 다 하기 爲하여 배워야 하고 익어야 한다는 것을 再言하고자 한다.

< 國會圖書館藏 >

論說

내가 아는 두려움과

그라개책

洪斗杓

人生이란 努力하는 過程이
 한 말이 있다. 이말을 換言
 하면 人生이란 두려움과 鬥
 爭하는 過程이란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人類가 時를 보
 드라도 上古時代로 부러 오
 늘날까지 周圍의 모든 두려
 움과 끊임없이 鬥爭하여 온
 用爭史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과 鬥爭한다는 것은
 곧 自己의 欲求를 充足하기
 爲하여 努力한다는 것이다. 그
 러면 이 欲求란 무엇인가?

欲求란 것은 곧 用爭 目的
 이요. 用爭目的이라는 것은 곧
 두려움이다. 卽 例를 들어 여
 기에 勞働하는 者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왜 勞働
 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鬥爭目的이 무엇이
 냐? 하는 것이 되며 살기 爲
 해서 다시 말하면 勞働를
 하지 않으면 生의 威脅을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勞働
 한다 하는 ○○를 爲해서 ○
 ○때문에 하는 것이 곧 鬥爭
 目的인 同時에 欲求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欲求라 하는 것은
 곧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 때문에
 人類의 文化가 오늘에 이르
 렸다. 할 수 있음으로 이
 두려움이란 人生을 支配할

는 悲劇의 鞭車인 것이며, 人間을 思索의 境界로 이끄는 모델이 가도 하다. 따라서 내가 무엇이 두렵다 하는 問題는 結局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며 무엇을 생각하는 즉 나의 思索의 境界는 무엇이냐 하는 問題가 되며 이 思索의 境界의 양상에 따라 나의 生涯가 決定되고 나의 價値가 決定되는 것임으로 '가장 두렵다'라는 것은 人生을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될 것이다. 그러다면 이 두려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捉하여야 우리의 生涯가 올바르고 人間으로서의 眞實한 幸福을 누릴 것인가? 나는 이 두려움을 다음의 두 가지로 大別 된다고 본다. 그 첫째는

두려움을 주는 主體와 두려움을 느끼는 客體가 同一한 境遇로서 즉 죽음이란 데서 오는 두려움 (但 必然的인 죽음은 除外) 強弱에서 오는 두려움 貧, 富 貴賤에서 오는 두려움 등등이고, 그 둘째는 두려움을 주는 主體와 두려움을 느끼는 客體가 同一한 境遇로서 즉 一時的 轉運이나 環境이나 忿怒로 因하여 理得을 잃었을 때의 自己自身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 등의 두 가지로 文해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을 捉하여야 하겠는가? 人間은 누구나 幸福하되야 하고 또한 누구나 永遠한 幸福을 追求 하고자 함으로 後者를 더 무겁게 보아야 하며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된다.

(18)

그렇다고 해서 前者의 두려움은 아주 잊혀지고 後者의 두려움만을 扶하라는 것은 아니며, 또한 人內으로서의 소위는 不可能하다. 다만 前者는 外的이요, 後者는 內的임으로 內面이 充實함으로서 外面이 正當하고 能動的으로 永久性이 있음으로 後者의 두려움을 먼저 打倒한 후에 前者의 두려움을 打倒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後者를 먼저 取한다면 何人은 勿論 後雜하고 어려운 社會問題는 解消 될 것이며 우리들이 念願하는 平和와 自由 幸福은 우리에게 깃들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平和와 幸福을 외치건만 現人類社會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거개의 사람들이 永遠한 平和의 幸福을 追求하려면 後者의 두려움을 더 重要視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며 또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면서도 實際行動面에선 그와 正反對인 前者의 두려움을 더 重要視한 結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前者는 動物的인 欲求를 充足시키는 魅惑力이 있는 反面 後者는 動物的인 欲求를 抑制하는 즉 自己節制와 自己完成의 길임으로 이것을 忍耐와 覺悟가 必要한 險路이다.

그러므로 이 險路를 어떻게 하면 打倒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幸福의 鍵이며, 아무리 後者를 잊혀지고 前者만을 行한 사람이라도 一生에 한 번은 後者의 두려움을 扶하여 행하려고 最

좋은 다 하는 때가 있다.

万若 여기에 動物的인 魅惑力에 이끌려 前者의 두려움이 더 重要視 되어 前者를 먼저 扶한 사람이 있어 어떠한 衝動과 環境과 忿怒로 해서 어떤 行動을 하였다면 그 行動은 才三着가 될 때에는 極히 矛盾된 일이지만 行動을 하는 自体는 그 當時는 죄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自己로서는 가장 옳다고 生覺한다.

그러나 一定한 時間이 지나면 動物性에 의 늘렸던 理性이 되살아 남으로 自己가 한 行動을 스스로가 批判하여 果然 不義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며 心的 苦痛은 理性이 의 늘렸던 때의 覺醒하였던 感情보다 몇十倍 더 큰것임으로 結果的으로

幸福하다 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런 不義를 하고도 心的 苦痛을 느끼지 않는 다시 말해서 理性이 되 살아 날 격들이 없어 人間の 價值를 喪失한 動物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됨으로 動物性的인 幸福이나마 自己는 누릴 수 있으나 幸福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社會相은 어떻게!

그 社會는 中傷, 謀略, 假飾, 自慢, 猜忌, 屈從, 虛偽, 不義等 人間の 矛盾 展示會場으로서 高等의 文明과 教育은 이 展示場은 더 한층 화려하게 꾸민 것이요. 이 가운데서 들끓는 群像들은 悔悟와 反省을 모르는채라만이 轉될 수 있으므로 그나마 幸福도 永劫적이 不是한 것이다.

(20)

金剛石은 금강석에 依해서
조개짐으로 얼마 가지 아니
하여 파멸의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自歩를 양보해서 비
록 파멸이 없이 그러한 행
복을 평생 동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하자. 그러나
인생의 힘으로는 타개 할 수
없는 인생의 힘으로는 타개
할수없는 인생의 종말을 품
하는 죽임이라는 自然의 힘
은 그 사람도 막지는 못
할것이다.

그러한 時期가 와서 죽임
이라는것을 目前에 두었다면
그는 果然 어떤 생각을 하
며 그다. 심정은 어떨까!

틀스르이든 다름과 같이
말 하였다

「死後 冥府를 받은 罪因은
地位, 名譽 富貴等 (前者 4두
려움)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

지 않는다. 그러나 處刑 -
分前에는 슬픈자를 위로하고
너머진 者를 이르고 어린
아이의 작난감을 痛楚해 주
기는 다루어 가며 하려한다
하고. 그러면 왜 죽기 前
에는 어떠한 心緒에서 그런
行爲를 할까! 自己로서는
欲望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죽음이라는 사기으로
는 이룰 수 없는것 外에
없음으로 순수한 理性만 남
게 됨으로 비로소 자기가
아직까지의 한 행동에 처해
서 을바로 비판하게 되어
不義였다는것을 알며 그 罪
過의 百分의-이라도 씻겠다
는 그야말로 千萬번 절벽에
서 실날 같은 거미줄이라도
붙들면 용이 지는것이 當然
하지만 그래도 붙들어 依支
하려는 즉 아직까지의 모

든 일이 악하였으나 조그마
 한正義의 길을 걸어 거기
 에 나마 자기의 위안을 얻
 어 볼까 라는 可憐한 생각
 에서이니 當時 本人의 心懷
 이야 말 할 수없이 虛無하
 고 괴로울것이다. 故로 어쨌
 든 向에 自己는 아직까지
 幸福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생
 活은 누구 보라도 不幸한것
 이며, 이것으로서 우리는 사
 생이 죽음을 直面 했을 때
 결이 死者의 두려움을 扶
 하려고 努力하는때는 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 번도
 死者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
 는 者도 이 때 만은 그
 누구 보라도 더욱이 死者의
 두려움을 扶하기에는 最善을
 다 한다는것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죽음이 라는것은
 항상 생각 할 수 있는 方

法은 왜 죽음을 目前에 두
 면 얼마 남지 않은 生을
 가장 알콤한 동물적인 幸
 福感을 즐기지 않고 무엇때문
 에 자기의 죄과를 씻는 일
 을 하여야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것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음이
 라는것을 보다더 항상 생각
 할 수 있을것이요 보다 더
 항상 생각 하기에 가장 좋
 은 方法임으로 해서 死者의
 두려움을 打倒하는데에 極경
 을 扶하기에도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일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올바른 일
 을 하여야 마음에 위안이
 되며 또한 왜 마음에 위안
 을 하려하는 理由를 안다
 하는것이 즉 樂放이다.

宋教에서는 이 宇宙는 全
 知全能 하신 하느님이 다스

(22)

리며 죽음이란 人間의 結局
이며 永生의 출발이다. 그러
므로 죽는다는 것은 神의 古
계로 가는 것이며, 神은 全知
全能하심으로 100%의 人間
古계에서 한 일을 모두 알
고 있으며, 그것들 심판하여
천당과 지옥으로 보내며 지
은 죄과에 대해서는 수 백
수만 배의 벌을 주며 人間
古계는 生命에 限이 있고
또한 不孝이 되면 노력하면
타개 할 수 있으나 神의 古
계는 永生인고로 生命에 限
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不孝를 打開할 수 없다는 일
들을 순수한 理性이 있을
때라야 만이 알게 됨으로
사람이 죽음을 直前 하여야
만 비로소 알고 神의 심판에
대비코저 그와같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일들을 할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神
의 存在를 믿는者처럼 죽
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 하
는 자는 賢을 것이다.

죽으면 神의 심판 받는다는
것을 믿기 까닭이다.

그러면 神이란 果然 存在
할 수 있는가? 실사 宗教에
서 論하는 神은 假想이라고
하자 즉 어느 宗教의 教理
는 根本原理는 「仁心」이다.
그러나 이 教理는 人間生活
에 절대 필요하며 진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이것은
自己完成이요, 自己節制
임으로 행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길을 古上사
들이 보다 많이 가게 하기
爲하여 人間의 弱點인 사람
은 長生 不死 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죽으며 또한 죽은
뒤에는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 뜻을 利用 하여 사람이
 죽는 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고
 영생의 출발이며 영생의 승
 계는 全然 全然한 神이 있
 기 근소에서 한 일을 심판
 하며 이 판결은 文字 그대로
 神聖不可侵이어서 우리가
 服從 아니 할 수 없고 이
 것은 또한 한이 없는 영생
 이라는 것을 가상하며 人生에
 있어서의 行狀 하나 ~ 에
 죽으면 심판한다 는 것을 먼
 저 생애하고 행하도록 할 것
 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게끔 하여 자기
 어려운 聖書의 길을 밟히려
 는 방법에서 엄으로 神의 存
 在는 가상 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대로
 에 敎를 믿는 것은 소용없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이것은 人됨
 으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다음의 사실 단은
 알며 또한 증상은 못 할 것
 이다.

즉 사람이란 죽음이 直圖
 하면 그 무엇인가 알게
 되며 그 무엇에 準備가
 하여 努力하되 그 努力하는
 일이 모두 한 바른 일이며
 약한 사람이면 일수록 더
 한층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죽을 때만 알수 있는
 그 무엇 ---- 그것을 準備
 爲해서든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야 됴므로 죽음을 내고
 짧은 時間에 나타 한 번
 이라도 더 활력 에 努力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실사 종교에서 神은 神
 이란 聖書의 길을 밟기 爲

(24)

해서 어떤 가상을 神格化
 시켰다. 하드라도 聖書의 권은
 곧 올바른 일만 하라는 길
 이므로 죽을 때만 알수있는
 그무엇, 여가게 準備할 수 있
 는 올바른 일과 성서에 올
 바른 일은 合致 될 수 있
 다. 이 사실은 사람이 왜
 죽는다는 것과 죽은 후는 어
 떻게 된다는 인간의 약점이
 해소 되기전에는 비록 神이
 란 存在를 가상이라도 아니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 神이란 각자의 생각하
 바 다를것임으로 예수교든,
 불교든, 회교든, 多神教든 論
 할바이다. 다만 자신의 생각
 하는 바의 신이 항상 자기

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기에 노력함이 죽
 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먼
 저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함이 后者의 두려움을 먼저
 打開함에 가장 捷徑이요. 또
 한 그 두려움을 가장 重要
 視하여 打開한 후에 그 두
 려움을 打開하는 것 만이
 사람의 진실한 幸福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念願
 인 自由와 平和는 우리에게
 스스로 깃 들어 우리의 社
 會는 樂園이 될 것이다.

(12. 20)

필자는 논산에서 函件중임.

金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自身을 말라

金慕鎖

Pascal 이 말한바와같이 「人間은 갈대와 같다 (Man is but a reed)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 He is a thinking reed) 라고 말한 格言대로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 물론 생각하는 対象은 다르기도 하고 가지각색이겠지만, 가장 重要한것은 生覺함이 있지않을까? 그것은 다음에 이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자기자신, 즉 이곳에 하나의 人間인 "나" 라는 存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나" 라는 存在가 있어야만 생각을 할수있는데 여러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나" 가 있다는 사실에 注意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 사실에 對해서 영구한 自覺을 갖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위대하고 여러가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자체 없는 생각이 되는것이다. "내가 存在하고있다" 는 이 사실이 삶은 감동을 느껴야만 우리는 眞實한 生活을 하는것이며 또 그 생활이 비록 소 價値있는것이 된다. 그러나 大部分은 자기자신을 認識지 못 하는대가 많다. 勿論 現世界의 科學이 最高度로 發達되고 위대한 功業을 생각할때 우리를 하나의 人間은 이 사회에 있어서 너무도 작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才能으로나 말 재주로나 지위나 권리나 무엇 하나 자랑

(26)

할것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아무 取柄나 所用없는 시명으로 가볍게 여길 必要는 없다. 世에 사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적은 存在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위의 자기가 아닌 자기의 자기로서 있는 곳에 적지만 존재가 아닐수 없다. 우리를 앞에 어떠한 世界가 있는 자기에 자기의 사는 방법으로써 살려 世界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앞에 전개되면 우리들이 각자의 자기를 살려는 무대가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 할것없이 자기의 자기로서 하나의 인간을 영달히 살피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곳에 자기는 世界의 中心이 되고 世界가 자기의 世界로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작자에게 있는 재능을 남이 갖지 않아야 하고 해서 그것을 바꿀수 없어도 되고 바꿀수 없는 事입니다.

남은 남대로의 생활방도가 있고 자기는 자기로서의 생활방도가 있다. 남의 일은 제쳐놓고 자기 생활방도가 좋아서 살면 된다고 하면 소극적인 諦念으로 풀기 쉬우나 실은 자기는 자기의 능력대로 살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좁거나 낮은 생활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는 자기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능력은 이 한계를 기반으로 하여 한없이 발전할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전한다. 노력으로 남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 부러워 할 必要가 없다. 우리의 능력은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여간 큰일은

생각 못하지 않을 것이다. 욕구는 관도가 없음으로 그 능력으로 보아서 무모한 욕구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광인이 아닌 이상에는 지언 불가능한 일을 생각할 리는 없으며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일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큰 욕구일지라도 해보면 대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자기능력을 과소시하며 그 욕구에 기가 질려서 후사하기 쉬운 일이다. 또 처럼 더 도로운 욕구를 포기한다면 그 일생은 반듯이 불만에 쌓인 일생이라 하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경우는 또 그때의 일이다. 그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데 까진 해 봐야 할 것이다. 욕구를 끝까지 관망함으로써 타고난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자기의 욕구도 자기능력을 인식한 후에 모든 면을 인식한 것과 부합시켜 맞은 욕구를 하여야 될 것이다. 자기자신을 과대평가했다면 그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증가되기 어렵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는 완전히 손해되고 결국은 실패라고 만다. 반대에 성취하였다면 결국은 자기힘에 맞는 일조차 못하고 마는 셈이 된다. 이와 반대로 자기를 과소 평가하면 겸손과 근면 보다 비굴하다고 볼 것이다. 성숙한 경우는 자기를 과대로 평가하면서도 자량감이 없이 근심한 태도로써 일을 성취하지만 비굴한 경우는 무엇에 처하거나 소극적인 까닭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기가 한창하게 가진바 능력은 죽이고 개척할 길을 스스로 막으면 위축한 생

(28)

행은 하게 된다. 다만 거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으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기가 절성한 대방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잘 살리려고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의 과실을 탓 하면서도 자기 과실을 탓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잘 생활 한다고 볼 수 없다. 남이 고난함을 천라 보거든 자기도 자기 고난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도 자기를 잘 생활한다고 볼 수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도 많지 않다. 그러하고 해서 오직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생활태도가 곧 행복의 길이다. 그러나 생활태도는 물론이다. 자기가 엄격하게 살아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보라 노예의 양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예의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안간은 못 할 리 없고 하지 않으면 타인 보람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못 할 것은 없지만 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능력에 따르는 것이다. 이 점을 잘 판명치 않고서는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자기 능력을 아는 동시에 또한 자기의 결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를 모르고서 타인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많은

결성이 있음으로써 그것에 바쳐 다른 사람의 결성을 알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어느 쪽을 보든간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간이라면 교양이 더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대개가 미숙한 인간임을 들뜨고든 들뜨지 않
 아도 자신의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지식이나 인식이 모두
 충분히 못한 까닭에 교양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식을 없애고 겸허한 마음으로 외부
 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남의
 행위는 자기것을 바쳐서 거둘 수 있지만 부채질하고는
 볼수없는 것이다. 소원 위엄으로부터 자기를 구하려면 친구
 의 조력이 필요하다. 소원이 이러한데에 흥고 하여들 친구
 구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 진실한 친구는
 참으로 드물다. 친구(心友)를 구한다는 것도 자기에 취
 하여도 상당히 중요성을 알수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하기 위하여 사색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겐 친하게 오자면 들
 에는 자기가 상대방에 취한 점과 무점이 부중함이 있는가?
 평성하기 좋은 것이다.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욕구와 감을
 절실한 것이 반드시 들바르신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나 들바
 르다고 말은 것을 권하여 가는 길 밖에 달리 살아볼 도리가
 없지 아니한가? 자기의 말은바에 대하여 세심 사색들은 너
 권까지 의견을 피우고 해설은 방해서도 좋지 모른다.

소원 세우를 오... 인다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세우...

(30)

민은바를 염려하 하고싶다.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위해서
세상사람에게 의지 하지나 모든 세속에 아랑할 필요는 없
는것이다. 자기 외에는 1 무엇에 의뢰하랴라는 자신을 잃
고 자기 힘이 약한데 원인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자기
를 위해서에 절대적인 승리가 있는것이다. 승리로 모든것
은 자기를 유혹하지아라야 또한 상항한것이아라야 한다. 정
상치못하다면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배움과 관철이 자기를 유혹한것이다 성공과 실패거나
성공하는것 모두 운명이로 팔자라고 하는 사람이 호기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밝은 인생을 살고 다른도 가볍게 가라는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어렵고 슬픈 심의 신용하는 자도있다.
그것이 운명인가? 운명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밝
은 심을 갖고자하는 들인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호소하지도않고 항의 할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운명에 항거도 할 수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형성되어자는데 정해진 처지와 사회의 변동이 무연의 기회
와 질병 같은 불의지변도 있다. 그러하고 해도 마음의 갈
용 노력 여하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변동에 대책을 강구
하여 질병과 재해에도 떠나가지 예방으로 그것을 가볍게
할수가있다. 거기엔 운명은 절대적인것이여 자기가. 있음으
로 자기 운명이 있음을 상투하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아케

라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반성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이 일상을 그릇 지는 수가 있다. 오늘날은 이 혼돈한 세대에 있어서 때 자신을 알라, 라는 Socrates의 경구도 생생하게 와 닿는다.



X 学生会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네 청소나 할라게나 <学校當局>

:: 学生会는 神聖不可侵의 存在이니 會의 總意 貫徹되야 할 것이 아니고 예행! <學.生會>

|| 閉講, 休講(閉講?)으로 들어갑니다. <敎養部>

X 速記 萬能 痼疾病에 걸리겠으니 좀 봐 주러 <學生-同>

|| 曁氣百倍해서 싸움만 했외다 싸! <幹部-同>

질문

- 1 本校에 들어 오게 된 動機, 所感
- 2 在學中 印象 깊었던 일
- 3 어떠한 配偶者를?
- 4 後輩에게 주고 싶은 말
- 5 起床 第一 動作
- 6 가장 좋아하는 ① 飮食 ② 꽃 ③ 數字
- 7 卒業後의 進路

金光興

- 1 ① 速記士 법이가 편견士기에 ② 말려서도 싫다
- 2 女閨士에게 逢坂當 하는 일
- 3 우리 집에 와서 보시오
- 4 승장이란 장두는 솔거이 못 된다
- 5 제 2 세를 소망는다
- 6 ① 植物性 加工品, 主食 다님
② 달걀을 아는 꽃 ③ 1
- 7 마누라에게 야단이나 맞지 뭐유

宗敎와 科學 Religion & Science

白相起

宗敎를 選擇해서 가진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의 知性人들은 어떤 傳說보다
도 科學을 좋아합니다.

傳說이라는 것은 古代에서 代代
로 傳러지는 것을 疑心없이 받
으면 되지만 科學은 무엇이든
지 確證해야 됩니다. 科學이라
는 것은 實驗에서 確證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敎會에서 얻은
知識은 確證되고 敎會에서 난
은 信仰은 確證할 수 없는

依說일까요? 萬一 確證할
수 있는 것만 믿고 確證하지
못할 것은 믿지 못한다면 어
린애들이 어머니를 信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애들은 어머
니와 사람을 科學的으로 確
證한 것이 아니지만 어머니를
信賴합니다.

大概 科學이라는 것은 무제,
같이, 모양 같은 것에 關係가
있는 것이고 宗敎는 價值에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科學

설문

- 1 A 現在보다의 駭屍를 考해서
B. 아닌 게 아니라 골머리 앓았어
- 2 遠足時 通勤車 방구
- 3 품보라도 돈만 있다면
- 4 砂의 眞味를 알기를
- 5 "어이구, 하고 기지개를 편다.
- 6 A 蓮花의 解장곡. B. 蓮花. C 99
- 7 물결지면 치는대로

하

吳

植

(34)

은 人生의 量的面을 關係하고 宗教는 質的面을 關係한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科學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눈물의 物質的 構成 即 물(99%), 粘液(0.1%)

염분(0.5%), 단백질(0.1%)에 基礎해

서 定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

로써 어머니의 눈물이 充分히

定義되었다고 할수있겠습니까?

宗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

나와. 왜냐하면 그 物質的 要素

위에 難念, 感情, 價值, 意味 등의

要素가 있어서 그것이 物質的

要素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

다. 宗教는 그렇게 미션레이

에는, 即 計量으로 할수없는 價值를 關係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눈물

을 充分히 定義하려면 科學

과 宗教, 이 兩者의 對答을

들어야 합니다.

科學은 現象態를 事實대로

觀察하고 그 相互關係를 찾

아 내는 것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것은 哲學이나 宗教

의 領域에 屬하는 것입니다.

(科學은 광범위하게 보면

哲學, 神學까지 包含하지만

우리가 普通 科學이라고 말

하는 것은 自然科學과 實驗科

학을 말한다)

2. 글씨 한번 배워볼까하고. 지금 소감요? 숙였시다!!

2. 다 알지 않소 바로 그것 또한가지 있지만 그런.....

3. 理解性이 풍부한 사람

4. 없다.

5. 사드심이 있나 없나

6. 아무거나 먹을수 있는 것이면 다

◎ 무궁화 (나는 大韓民國의 一國民이다) ◎ 2

7. 對答 못하겠어

선
문

徐
桐
哲
Not Seung Hall

過去の 宗教史 科學史에는
 자주 衝突이 일어나는데 그
 까닭은 各부로 各의 領域을
 侵犯해 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事에 科學이 勝利한
 點이 많았다는 것은 宗教가
 科學의 領域을 侵犯하였은 연
 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겠
 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宗教가
 科學에게 慘敗 慘하고 劣力해
 弱해 나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反省과 함께
 宗教信仰이 제 자리에 서게
 되고 더 正當한 地位이 있게
 되고 새로운 深刻한 活動을
 가지고 偉力을 發하게 되었을

니다. 科學에서도 마찬가지인
 니다. 科學이 宗教信仰의
 領域을 侵犯하면 오히려 科
 學의 힘이 劣力해 지기 때
 문에 제 地位를 지켜야 한
 하는 必項도 있게 되었습니
 다. 이 둘이 모두 제 立場
 을 지키면 서로 和平하며
 協助해 갈 수 있습니다.

科學으로 되어지는 感覺的
 經驗과 宗教的 經驗은 매우
 다릅니다. 科學은 自然的, 客
 觀的으로, 中心的, 人格的인
 것이요 누구에게나 認識할
 수 있으나 宗教는 아주 主觀
 的 條件下에 있고 人格的인

- 1. 本業이 精銳고 드러났지 그러나 고심어 심하고, 一斗
 寸해 막심해
- 2. 별로 欲을 本校 학생 諸君보듯것, 그러나 보지는 않았음.
- 3. 守節, 守節, 守節, 아름답고, 禮容사 23개이상 들어 가야
 함이다. ⑦ 하루 2 處(死)의 道로 進진.
- 4. 7 佳句 위치를 알고 行動하라.
- 5. 本 宗고 하루지날 생각하며 앞배먹는것.
- 6. 비지, 모란, 32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36)

여 仁人 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科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人格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宗教經驗은 언제나 感覺經驗보다 더 위에 있고 앞서 있는 것입니다. 科學의 眞理라고 하는 것은 人間의 神像이 되는 것이요 이 世界에 內在하는 것이지만 宗教的 眞理, 信仰에서 얻는 眞理는 人間 理性의 神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人間의 理性이 認定하든지간에 그 自体 속에 眞理가 基礎되어 있고 그 것이 客觀的으로 하나님에게서

徹視되기 때문에 사람의 理性이 大廈로써 眞理라고 規定되기에는 不可能의 뜻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 때에는 逆說的인 것으로 보입니다. 宗教的 眞理는 사람의 理性의 神像이라기 보다 오히려 人間 理性에 強迫해 와서 그 限界를 넘고 決定지위 중다는 意味에서 主體的이요, 超越的 眞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科學과 信仰의 眞理는 그 領域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僞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金秀岐

- 설문
1. ①-④으로 ⑤ 그러나 深望이 구운
 2. 卒業試驗
 3. 많은 男性과의 交際
 4. 나의 알고 나의 착수하라.
 5. 같은 다음 지요!
 6. 그저 아무거나 ~
 7. 막연 確查 아나 論山行 의지로 모르겠소!

Simin Kim

承襲될 수 있다고 살아야 하겠
 습니다. 우리는 '신앙한다' 는 것
 과 '과학한다' 는 것을 일단 구
 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전혀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眞理와 과학
 의 眞理를 二元的으로 認定하
 는 것으로 充分한 것이 아닙니다.
 Christian에게 있어서 特有
 한 科學的 眞理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科學的 眞理는 Chr-
 istian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眞理에 依하여
 참조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
 나님의 徹觀의 眞理속에 消
 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固有性을 가지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同時에 Ch-
 ristian에게 있어서 科學
 是 그 本來의 限界를 나타
 내게 하는 것입니다.
 科學하는 것은 惡도 아니고
 罪도 아니다. 다만 科學이
 어디까지나 人間 立場에서

- 1. 친구의 권으로 들어왔나 보오.
- 2. 진심, 권한 친구에게 미안 할뿐
- 3. 다 날지 않소? 자꾸???
- 4. 손머기전에. 다시 정돈 하고 ----
- 5. 풍이 풀의 머리를 갖지오
- 6. ① 선경담, ② 창경원 벚꽃, ③ 9=잡도
- 7. 알송 알송, 알송알송 ... 모은 조하나 위시오.

이
 장
 11

理性만 숭상하고 理性의 빛
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가령, 하나
님, 죄, 구원,)에 처해서 거부
하는 것이 罪입니다.

사람이 科學에 偏重하면 科
學은 絕對視하게 되고 科學的인
眞理가 아닌 것은 全部 不確實
하다고 해서 極力 反對하게 된
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文化世界에서 科學的인 方法을
擧用은 하나 科學的 眞理를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文化世界의

重心을 顯良하고 있는 人間의
原罪에 처하여 科學이 현다
나 可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
에 科學的 方法을 絕對視하
지 않습니다. 참 絕對者를
알고 人間의 罪로 말미암은
總之를 處理하고 解決하는 것
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이 徹視하신 길)
밖에 없으며, 科學研究의 功
극의 資料를 주는 길도 여기
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科學이 一時的이며

이 지 성

성
무

1. ④ 묻는 부분과 같겠지요 ③ 내 人間 丁史를 강조.
2. 極力 反對
3. 알고 싶은 부분, 그러나 하늘빛의 소리와 두들기의?...
4. 아메 그만 두시오.
5. 라디오 스위치를 넣고 ---
6. ④ 알맞은 것은 없나 한다 ④ 히야시스 ④ 4를 제외한 1, 2, 3, 5, 6, 7
7. 輪山으로 가기 쉬운 것 같아

絶对적인데 처하여 하나님을
얻는것은 絶对적이며 永遠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科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自家實驗
을 통한 自己發 知識에서
科學知識을 追求하는것이 아니
라, 하나님에게서 徹視된 眞理
(그리스도)를 얻는者에게 부여
된 사랑과 憐憫때문에 그 안
에서 科學을 하는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권 科學의 노
력자 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

體的인 여유를 가지고 科學
하며 또한 어떤 主體의 拘
場에도 拘束 함이 없이 自
由로 事物을 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科學을 바로 살
리고 善用해서 人間の 幸福
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것은
現代科學文明이라고 하는것이
宗教信仰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만이 絶对한 것
이라 믿는다면 그것이 허
물어 지는날에 人間の 絶对

- 1. 速效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상상외로 힘들어!
- 2. 글씨요. 별명 하나 더듬것은 정말 안맞았지요?!!
- 3. 정좌하고 남성다운 여인
- 4. 2령것 고쳐하시요.
- 5. 날이 새면 언젠가 그것이 2령.
- 6. ㉠ 밤이 ㉡-종교 ㉢ 국화 ㉣ 넘버 1.
- 7. Det Des Dem Des! 팔애로 되겠지요.

* ㉠ 불행은— 인생에 있어서는 必命石이라나
—이건 오다 가다 들은말—

Justin-Boy

(40)

을 무엇으로 메꿀것이나? 하
는데 있습니다. 예수前 700
年前 大先知者 이사야가 하나
념으로부터 날아 온 예언의
말씀中에 「단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떠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破損
되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을 科學文明, 物質文明
이라하는 못입니다. 이 못이 아

주 돈과 관줄알고 모른것을
잡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 一生의 計劃, 希望, 將
來 등을 잡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物質文明은 經濟變動
이 일어나면 그 못이 빠져
서 부러지는데 그때는 거기
걸어 놓았던 計劃, 希望, 將
來 등이 모조리 땅에 떨어져
파살이 될것입니다.
有名な 社會學者 스톨킨의
말과같이 지금 우리는 盛衰
의 社會(科學的 社會) 末期



1. 들어오고 보니 속기 학교 터지요.
2. 세월도 속기만큼 빠르다는 것
3. 그저 낭자면 되겠지요.
4. 모두가 우중생이 되어 주었으면 (후배)
5. 돈을 비빈다
6. ㉠ 발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 ㉡ 그라되오라스, ㉢ 520
7. 걸어가는 걸인지 타고 가는 걸인지 두고 두고
보아야 알겠어지요

Handwritten signature and scribbles:
A large, stylized signature or scribble in the right margin, possibly reading '이정호' (Lee Jeong-ho), with some illegible characters and lines extending downwards.

에 살고 있습니다. 現代文明은
 特別하기는 합니다. 科學의
 原子爆彈이나 水素爆彈으로 이
 地球를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앨
 수 있는가 하면 地球를 생명이
 돌고있는 人工위성이나 月世界
 行 드래프트의 發明은 二十世紀
 科學文明을 極度로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
 지 우리 人間の 眞正한 幸福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世上
 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는
 시켜도 결코 그와같이 速히
 만들어 낼수있는 위험한 것을

이 아니겠습니까? 이 特別
 한 科學文明은 오늘날 人間
 의 本性을 거슬리는 데가 많
 아 人間은 極度로 피곤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分明히 우리가 걸어던 여러
 가지를 벗어나서 正當의 道에
 다 걸어야 할 必要를 느끼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絶
 對者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信仰
 의 道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計劃, 事業進行, 所望,
 將來를 하나님께 依託하지 않

- 1. 아쉬는 바와 같이다. 힘을 보이다.
 - 2. 特別한 것이 없다 (平凡했기)
 - 3. 클라 후프 + 聖자의 所有者 + 21세기 = ABCD
 - 4. 固執히 노력하기를 / 자신의 위치를 아는 인간.
 - 5. 房門 열고 궁둥이를 붙들고 突進 하오
 - 6. ① 내성 + 겸손 + 각우기 + 고주장 + 간장 + 외향 = 韓半島 정식
 - 7. ① 卍 + 장미 ② 「9999999」
 - 8. 社會에서 許諾하는 대로 말이 가질 것이이다.
- 〈 安 善 鎬 〉

(42)

의면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信實하신이요, 最後의 勝利者이시며 '알머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信仰입니다. 이런 信仰을 中心으로하고 서로히 科學을 하며 經濟建設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그럴것 이 세상은 살고 이삭이 드려가듯, 시드는 科學文明도 살것이 있을것입니다.

(1958. 8. 26)

금연

宗教는 사랑의

最高의 形式이다

— 팔 권 —

설문

1. 잘은 신전에서 들은 모양이고
점만 돌면 어렵고 쓰면 쉬고
2. 글세요?
3. 말 할수 없읍니다.
4. 남자에게 지지 말자, 여자들이여!
5. ??????????
6. ㉠ 가리지않고 ㉡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 Lucky Seven
7. 잘 데로 차고 올테로 오고 그럴다 받겠지요.

Handwritten scribbles and signatures.

論說

二十代의 抗辯

既伐層이 바라는 것

젊음이 인생의 중요기 과 흥과 판아래게 구별되는 점
 은것은 비단 어느 누구에게 일것이다. 개인적으론 처변기
 반 국적인 노리만은 아별것 가 중요하다면 그들의 집안
 이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체인 사화나 국가에 있어서
 보라도 허깨의 지성과 무지 소 이를 "二十代가 중요중
 르서 판안을 극복하려 강내 이라는것은 자명한 것이다.
 갈수있다-것은 그들이 그만 언제나 죽음의 '레지스탕스'
 클 소수성을 지내것이고 더 에 의해서 역사는 그 오랜
 리운 현실과의 타협을 어느 동안의 투쟁과 기만에서 해
 령도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했고. 이로 인해서 역사
 이럼 현실에 집착된 기성 는 발전 겪었던 것이다.

황

머래
 대



1. 어찌다 보 --- 바람 맞을것 같애
2. 청소대 여학생 자리에 풀벼락
3. 철구어라도 치라만 들렸으면 OK
4. 살 살 불기만 해라.
5. 찔 찔
6. ㉠수수정화, 풍속 빼고는 다 ㉡갈라질 ㉢ Q
7. Que Sera Sera

(44)

그래서 부패의 해국지사를
 은 항상 청년문제를 제일로
 여러 왔은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 같이 부패의 국을
 이토 현실이 있어서는 특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런 악재에서 지금까지 큰
 우리나라의 국제에서 청년의
 인도문제를 그려가 왔고 여
 러 방면으로 이 문제가 활
 활(속) 되고 있음은 기쁜일
 이요 또 중요한 일이라 할
 겠다. 그러나 그들 기성층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도덕이나

주목에의 추종을 요구 강요
 해 왔은것이다. 그렇다면 그
 들 자신은 고살했는가? 자
 기 의심스런은 보통이다. 이
 어 언제나 논의의 것이 되
 고있는 20대로서 그들 기성
 세의 약속을 전으로써 중대
 손실한 청년 문제의 해결은
 안고자 하는 바이다. 한해 두
 것보다도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관치이나 무조건
 과잉기 진에 흥분한 여권
 을 주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



- 1 우리 시기의 필요성을 느낀것이랄까
- 2 취향
- 3 관공적인 것을 지니 여성
- 4 내가 성향한 마음에 할말이지
- 5 규범
- 6 中国料理 취향 2
- 7 내 감정을 뚜렷히 잘 나타낸다. 精

朱
 莫
 精

관 체와 모호를 주어 달
라온 것이다. 희망 없는 곳에 이
상 없고 이상이 없는데 별
이 있을 수 없다면 희망 없는
말씀에의 새 땅은 두기 위한
침묵이란 무슨 가치 성이 있겠
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 어찌 되
사의 진언보가 있을 수 있겠
조각으로 접종하는 침묵이란
사상! 그것은 무엇인가! 조곡
의 기성사회의의 흥미를 떠
나 일종의 조 내지는 비판
이나 침묵인것을 우려는 너
무나도 잘 알수있는 사실인
것이다. 물론 용감으로 이

관 가령적인 사회질서 속에
서 영적이라는 그들의 생활이
건장할 수 없음은 수긍하
바이나 그렇다고 이를 전
그런 '용감적인 악행'라고
자위나 겸으로써 그들의 위
신을 변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관은 5.16의 건
역사 속에 사상을 관변도 제
압해본 기억이 없는 것은
조상들의 후두선에 불과할것
이다. 그러하면 무엇이 그들
에게 절망을 주었는가 물론
그것은 여러면에서 고찰될수
있으리라 우려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표준"을 요구하는

1 들어 보는 사람의 의전과 동일

2 세칭 쪽지 사천

3 내가 표제하고 있는 바를 그에게

4 불호 없다

5 글씨 읽히다

6 ① 불교를 다 읽고 말했지

② 성미로 말해두지말 ③ 22권은 내 번들

7 발가는대로 가르쳐 줍니다

金
봉
상
우



(46)

것이다. 盲人이 盲人을 인도 할수 있다면 어찌 그를 不仁 과 不義에 빠진자들이 후에 를 선조할수있으랴? 옳기가 있느냐?

現社會의 非行 惡德 邪惡은 이후 羅에키 困難이나 1 역시 원인은 아직도 미 속한 민주사회에서 안개같이 나 자기中心의 利己的인 打算에 의해서 지나친 "애교"의 思考方式이 原因된것으로 본다, 물론 이는 외개한 후 진사회이 흥폐라고 할수있으

나 그들은 찬란한 5천년의 光輝를 가진 조상들 이였고 이조(후조)의 田舍郎들을 등 밖 觀望하고 自派 아닌 他派 을 꾸짖을줄이는 무렵자한 조상들이요 기성종교적이다. 1점으로 이의 匪道은 무의 보다도 시급하고 기보적으로 중시 되어야 할 문제 이리라 1되나 그들은 제2세 국민 을 우려하여 才제 하려 하 기는 커녕 오히려 법이라는 질곡으로써 그 처벌에 급급 한 것이다 그들의 良心沈沒



- 1 Speedy 한 때에
- 2 연후한 시점에 웃음과 말소리 金
- 3 No Comment, 모티와 샐... 炭
- 4 인내 批
- 5 미용제조(?) 소위 유행 「홍화 후프」
- 6 Pudding 百合
- 7 ?

이 청년시대를 온전한 일도 없
 - 였고 그들의 반항에 이것이
 앓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반항을 억압키 위
 해서 법을 개정했고 그들 씩
 은 기성사회에의 강한 추종을
 권리와 하기 위해서 도덕을 온
 위하는 교육이란걸 두었다. 강
 령에서는 무엇을 교육했으며
 학생을 속이고 도망고 안하시
 키 준것은 누구였으며? 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약속했
 으기야애 죽어가는 부르짖음의
 울 보게 했으며 길벗은 아우를

보게 했으며? 광명을 부
 르웠고 진세 부리는 꼴을
 보게 했으며? 의무를 받
 겠으며 왜 길이를 가르켜
 주었으며? 그들은 법이란
 걸 세웠으며 그 셋만을
 알사라는 뿔을 지켰으며
 다. 또 이관할 만들어 침
 년의 용바를 이성을 천부
 케 가한 "백"이란 말
 과 "사바"란 말을 들
 리 가르켜 주었다. 그들은
 "백"이란걸 천천으며 진의
 의 승리라곤 할 입중사관



1. 부끄러워서 ---- 1차 부끄러움을 뽐인다.
2. 광명 같은데
- 3 아이 참
- 4 좀더 여학생이라 바마를 카라
- 5 머리를 대면 집니다.
- 6 ㉠ 만두 ㉡ 외화라 모 들라하 ㉢
- 7 아바 高麗大佛 부엌과 알린다

金炳姬

(48)

하나의 史實도 없는 것이다. 1보다도 사악과 惡毒穢의 승리
관건일 보여 주었고 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들은 不法 不正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고 情狀이 어
두운 人事를 관했고 賄物을 받고 舞弊시켰으며 돈으로
罪를 救했으며 罪가 없어도 사랑을 죽였는가? 지어지 痛
嘆할 노릇이다. 이런 속에 이들의 類에 없는 「不義의 罪狀」이 어
찌 새 색이 얻을수 있을 것인가? 어찌 그들을 아버지호한, 스
승으로 한 거기에 靑年에게 希望의 길이 열려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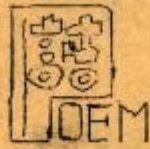
어찌 그들을 아버지호한, 스승으로 한 거기에 靑年에게 希
望의 길이 열려있 것인가? 或이나 있다면 그것은 일부 腐
은 世代를 父母호한 愚劣종의 사귀들의 산아한 처세를 두
고 이룰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재=세가 그들 선조의 遺訓을 받들어 받든
다고 누가 단정할수 있는가? 「義보다는 不義」 「善보다는 惡」
에 가까워야 이. 청년은 세태속에 일어나와 자신의 생명을
보전 할수 있거든 공포를 왜 그들은 우리 20代에게 주게
판 하고 있는가?

<寄靑者에게 주는 말: 紙面關係로
全載되지 못함을 사화함 (이런질자)>

“들만”

時節을 쓸데 없이 보내는 것이 제일 큰 사치다
— 프랑크린 —



< 싸마귀 >

H. T. J

마지막 難題를 爲하여선
너에게 慰음을 주지 않았다.

다시 우리들의 먼날의 難題를 爲하여선
가장 물들지 않는
새까만 물빛으로 있게 했다.

그리고

네 홀로 나무자사 片에서

그 誓約을 지키는
우는 眞誠으로 있게 했다.



> 1957 3 <

(50)

詩

十二月

송 ㄷ 大

잔디도 차울고
 별들도 시들면
 12월은 먼-곳
 窓들이 유년하도 다수은 달----

꽃다운 솟불을
 가슴에 사위며 사위며
 12월은 보내는 술들이
 감칠이나 많은 달---

흐르는 時間이 소량을 보내고
 12월은 언제나
 흐린 저녁 終點에서 맞나는
 12월은 謙虛하도 서클은 中年

1958. 12



- 三題 -

彫 刻

H 生

물결이 들고 새긴 바닷가 저 돌벽
 물수룩 맘 끌려와 귀 하나 못 떠움은
 億萬번 대안 솜씨의 細? 함을 알리라.

石 壁

石壁 石壁 石壁 간담비에 젖은 石壁
 풀이들 그 뿌리 걸어 본적 없것만은
 깨어난 오랜 이끼는 비안두픈 곰자나

年 輪

오랜 세월을 따라 자라난 저 年輪
 무수한 성장은 가고 계절마다 깃 들었으며
 자(R)로써 재이량이면 북에 날지 않는다.

(52)



해변

— 黃泰鎭 —

「비취·파라솔」들이

흙바닥 모양 곱게 널린 사장에

깊은 情熱들이

해당화 처럼 무더기 피었다.

파도는 진동일

모래불을 올라다 간다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또 밀려와

열레발을 친다.

모래불로 이럴때마다

마음이 우수 끊어졌다



詩

가쁜 비운

金謙善

기다림에 지쳐버린 밤이라 하자
 소리 밤마다 파아한 불을 켜는 너는
 또하나! 기다리다 죽어간
 어느少女의 슬픈 낮이라 하자 -----
 하염없이 젖어가는 밤거리가 있을대면
 오지 않는 너의 애타게 소리워
 따름에 간직한 사랑만이 더욱 두드러 지는데
 어느 슬픈 사연이 너를 낳았길래
 아예
 스스로움 조차 없이
 밤마다 창집문 앞에서
 나는 울고 있어야만 하는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버렸다는
 목구멍 가득히 새-빨간 피를 토해
 죽어 갔다는

(54)

사랑에 꺾인 어느少女의 애담은 낮아
밤마다 나로 하여금 화아관 불을 켜게 한다면
어디면 네 불빛 아래에서 금실 수놓은 가시나랑
머슴아 예절같은 아예 푸른색만은 勝物하지 못할

오가는 길이나마 보이려나 ----
지금의 거리의 등불이 되었다지만
어머님의 품속같은 파아란 색같은
조개진 침상에서 튀어나온 관아리
구슬픈 우연의 花形 같지만 한데 ----

밤이 깊어 갈수록 너의 웃음 더욱 푸르러 가고
보슬비 나리번은 너의 말뚝은 더욱 짙어가고 ----
가버린 내少女가 생각 키워져
잡아보는 펜위에 네 푸른 마음을 적혀본다.



叢書

考題

"人"生

여기 ——

햇살을 등진 石像이
年輪을 씹어 삼킨 痕跡에 있다.

하나 ——

아스랑지 過去를 默想하는
都是 ——

現在와의 妥協을 싫어 했나 부다

1만

물음을 터트려 농기에

아 —— 직 —— 은

「한날 호해 썩어진 어느 小靚의
女主人을 찾기에 여윈 마음이 있소」

「너가 누구요」 하고 물은날

感傷을 히트러 놓았다는 목 메인 소리

그는 ——

너의 化身이었다고 -----

비는 왔어도 가슴만은 활짝 열어야지!



『삶과 죽음』

김수민

삶이 苦海라면

죽음은 樂園 인지도 모른다

삶이 쓰다면

죽음은 단것 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人間은 죽음을 豫하는 지도 모른다

삶이 建設 이라면

죽음은 破壞 인지도 모른다

삶이 希望的 이라면

죽음은 絶望的 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人間은 사는것 인지도 모른다

나는 恍惚한

흰털기 장미꽃

그누구를 爲하러

기처럼 이름답게 피었을까

내

넌 기다리는 마음

하연없이 눈들 저노니

내님

님 오시기 전에

행여

시들가 하노라

나는

폭풍우 삼한밤 막막한 바다세

부딪쳐 떨고있는 한쪽의 조각배

그래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호소하고 애절 하다가

지러 쓸어졌다

도라 나에게 한가닥 희망

그것은 힘없이 표류다가 너를 댕치는 곳이

나의 유일한 안락처 살려라

인생이 쓰나미냐 갈까?

인생이 달마냐 갈까?

아마 제발 쓰는지도 모른다

쓰면서도 단것 같고

달면서도 쓴것 같은 , 삶은 달콤

그것의 의미를 맛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햇은비 모를도 힘없이
 넓은 바람결에 날리어
 귀땃대로 퍼덕인다
 여기 선악한 人間
人生行路의 한 나그비가
 끝없는 荒野를 걸어 간다
 갈바를 돌아
 헤메이는 이 선악한 世界
노기 흥권할 심한 곡풍은
 너무나도 자주 나그비의 歸路를 방해한다
힘없이 힘겨없이 헤메이 다가
 지치고 지쳐서 넘어져 들어갔다 가도
그래도
 그 부끄를 찾으려고
부서운 광풍을 헤치고
 또 헤치며 나가는 고나

{ 詩一首 }

금모래

海峯

반짝 반짝 금모래 금빛 금모래
가까운 자 금별판 먼자 은별판
사뿐 사뿐 걸으면 사각 사각 소리

딱 가다가 되보면 오뚝 오뚝 자리
바람 한번 휘 불면 하늘에서 온듯
창공에 반짝이는 별들 튀우어

불진은 오더양을 모두 메꾸어
떨어진 육 대주 한데 연해서
장부의 대 뽕뽕 펼쳐 보리라.

오다가다 들은 말

◦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졌을때 세계를
뒤엎은 무서움을 이기는 용기를 찾을수
있을것이라 — Einstein —

詩

연초록 조각들의 마음

孫相龍

안개가 인다.
수은 보다 짙은 안개가
대지를 누르며
나를 휘쓴다.

청명한 밤
오로라의 불빛보다 신비한
은하!
모든 성좌의 무리를 가르고
안개를 뿌린다.

질서와 같은

아니면

달 - 공전

오! 은카야
 은카 성화의 완전한 희망이야
 이대 신지를 위하는 안개가 있을진대
 아! 내어
 은카를
 마음과 해 보리라
 연조숙의 야속과 조각
 빛속에 그것이
 한없이 애 타게 풀려남

흰은 태양아래 무르익게 심숙할
 연조숙의 그것이
 자유한 안개속에 수없이 흐르는 밤
 아! 그러나
 안개가 안다. 정선리 ---

청명과 내일을 약속 할것을 ----
 오소리라 불빛보다 신비한
 은카에게
 진심 기원한다.

1959 /



(62)

수필 — 휴과 —

내 생의 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정녕 그것은 이 거리의 산책時間이라 언제부러 이 거리를 걷게 됐느냐는 그 年元은 언제라고 하지 않더라도 왜 이 거리의 晝影이 내 마음을 흥족케 했는지는 그것도 또한 별것이 없다. 세월이라든 긴 時間의 末尾에서 季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렇게 내 생리에 符應되는 정말 아름다운 이녘도가 혹은 眞價가 길을 걸지 않으면 무슨 말이라도? 이니 그런것도 없고 사부리 떠러



바야 그저 무심코 걷고 싶은 거리다 그저 별 그후에 귀찮은 가로수가 갓을 쓴 자동차의 往來는 그저 알지 않지만 아스팔트를 깔지 않나 전부도록 먼지가 이는 거리에 참아무리 생賞해도 왜 그래도 心의 몸體가 발거름이 옮겨지고 마음이 쪽은해 지는지요 이것은 지금 무심中 나의 心中에 떠올랐다 그러나 무슨 左右의 線은 제쳐 놓고라도 이거리의 土塵은 散策의 路程이 끊기면

이마도 내마음은 삭막한 沙
 漠에 취해지는것이라고 도
 느끼는다 볼지도면 이거리세
 는 축축한 돌끼가 끼고 양
 자같은 行人이 살살한 봄
 바람속에서 음송크리며 지나
 가는 보습들이 나타끔씩 있
 을뿐이다 그리고 불꽃이라곤
 과거세없는 사막처럼 虛空한
 속을 바람이 뒤흔들나. 먼치
 를 일으키고 주위타는게 볼
 모없는 괴각집 명채있고 사
 란 가개가 하나있을뿐 들들
 카기 짝이없는 거리다 그더
 나 나는 이거리를 通行하기
 시작한 이후 이거리를 씌어
 해보죽은 없다 初春의 싸늘
 한 빙기를 풀기고 서는새
 거리에 느려선 가로수 잎이
 들리는 날부터 이거리세는

무한한 생뿔가 돈다 이제로
 부터 이거리는 움직이기 始
 作하는것이다 그대는 나오
 本格的으로 이거리의 主人公
 기된다 이제 또 여음이 와
 서 綠葉이 옥머지고 보면
 매마리의 간음함이 長長할의
 이 다과도록 들려오고 제법
 鄕象들의 往來가 많아지게된
 다 시는때는 도란 도란 속
 삭섬과 웃음을 풀기며 쌍쌍
 이 짝을지어 절문자들이 지
 나기도 한다 시릴때면 한길
 이거리를 거니는 내마음은
 하얗게 되어나는 문계구름
 구름: 처럼 흐릿한 마음과
 또 어디인지 모르게 내마음
 은 돈화 해지고 계절의 감
 심이 풀만해진다 가끔 깃구
 진 아이들 처럼 귀를 귀루

(64)

리며 그를 사람에게 전폭해
보기도 한다 이것으로 만도
여름의 이거리는 백퍼센트의
효과를 볼수있다 이렇게 二
人行 三人行 行路이 점점
부러가면 서너새 여름이 시
거리에 딱한다 그리고 크라
타나스며 포프타의 샷들이
제크기에 이른다 제법綠邑行
路가 된다 구름이 육유히
프라타나스위를 스치고 동벽
하늘이 환해지는 여름날 로
맨틱한 짧은 가슴이 무드록
아지고 季節의 숨소리가 들
아지면서 부러 또더위는 女
인들의 무거운 옷들을 하나
하나 벗겨낸다 머리를 치켜
뜯은 髮形의 "후렌드 섹스"
들이 불을여라 숨을 벌림이
며 또한 차례 이거리를 지
나간다 이 관대의 行程이

지나면서 부러 季節은 變化
한다 그리고는 行人이 즐거
든다 三角소 저너머에서 바
람이 불어온다 신들바람이
가로수 샷새를 팔당 팔랑
흔든다 별래 소리가 서늘해
지면 이제부터 이거리는 내
독판이다 가을이온다 황혼이
잡힌 차거운 거리에 외로운
行路이 되면 거의 空想을
삼고 특직한 밤거리를 옮기
며 과거를 돌아보는 기쁨에
잠기곤 한다 이제 한산한
이거리세 午後는 심심한 나
무와의 병을 가져온다 별든
나무와는 점점 노래간다 잠
자리의 날음조차 서늘해 보
인다 여할때 소풍을 하는
小學生들의 즐거운 行路이
지나갈다 또그리고는 조용해
졌다 내머리도 아무 부대감

『秒』

~ 朴 槿 植 ~

없이 외롭게나마 이거리에
 선다 바람 지나든 바람에
 나무앞이 외로르 떨어 졌다
 落葉季節의 시체는 거리에
 덩군다 더한층 바람은 거칠
 그 차갑게 이거리를 通過한
 다 온하늘엔 먼지가 자욱해
 진다 거리의 通行人은 아주
 끊어져 버린다 나만이 이거
 리를 걸자니 북북한 내발거
 림 역시 계절처럼 차갑고
 가을 처럼 처량하게 느껴진
 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화화 바람은 세차게 불어온
 다



똑딱 똑딱 -----
 數十年 數百年의 丁史도 이
 래서 흐른다 이 가장밀린
 이眞貴性! 天賦의 叔利인날
 享有의 功能者가 없는 또한
 이感謝性 어떤者는 씀사라
 "그건, 할지모른다 要注意?!
 샅차, 하는 순간 一生을 左
 右하는 그며에도 漢江을 흐
 르듯 유숙히 까딱 살은체
 똑딱 똑딱 ----- 살미운듯
 하면서도 그어떤가 무서운
 매력의 있는것만 같다 기부
 서운 매력 速記는 이매력의
 所有者이다 容恕라는 말을
 사랑곳 없다 솔직하고 談話
 한 곳에는 언제나 구멍있는
 容恕는 없을것이다. 容恕라든
 가雅量을 배울줄 모르는 이
 速記의 性品은 저 秒와의

(66)

가능은 同聯性이 있는가보다
和의 眞意나 価値의 眞意나
人間生活에 있어서 勿論 여기
에만 局限 된것은 아니다

悲 夢

의 三分肉

<宋 其 勳>

鉛筆의 尖端을 凝視하는 눈
초기 파르르 떨리는 鉛筆끝
"자! 무릅시다" 소리에 관
중 요란 스텝게 떨리고 教
練관은 무덤 속처럼 고요하
다 숨소리 하나 하나가 들
리고 심장의 고동 소리 고
막을 울린다 深呼吸를 몇번
했지만 여전히 심장은 跳
것만 같다 하나 들 셋 넷
--- 마음속으로 가만히 세
서본다 "ㅁㅁㅁ 漸變" "축, 숨을

드리키면서 No.1의 부드러운
감촉이 종이위를 미끄러진다
빨세라 놓알세라 精神을 가
다듬고 가다듬고 흐르는 高
波를 捕捉 理解 分析 비로
서 손이 나간다 半寸不遂인
상 잘음직여 주지않는 손
떨리는 손을 꾸짖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高波의 뒤를
쫓는다 "--- 칼수는있다고 ---"
선필끝이 숙내려 오려다 다
시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뿐이었지 손은 그냥
내려와 버렸다 앓차 실수
서떻게 하나? 電光처럼 閃
滅한다 그순간도 高波는 여
전히 흘러간다 두자 석자
역자 자꾸만 밀린다 마음이
燥急하다 失敗! 서쩌나 ---
쑥쑥 머리에서 피가 빠져
나간다 앓찢혀진다 곱속같다
까무라 칠것같다 귀진에 스

스쳐는 소리 --- 무슨말인지
 그제 출갓로만 들린다 "룩"
 머티션가 鉛筆이 부러졌나
 부다 이래서는 살되겠다 다
 시 精神을 가다듬어 단숨에
 무뚝 극러 거렸다 方向
 "차이즈" 그제 식망이다 反
 文이 살되겠다는 의구심이
 번적 스킨다 多少 安靜시켰
 던 마음이 감잡을수없다 무
 쟁이 무엇인지 티퍼놓고 남
 의손 같은 손을 움직인다
 그제 왼손으로 붙잡아 놀리
 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
 전 反文이 된건 살되건 쓰
 기라도 흉내라도 내야 쓰겠
 다는 - 兪분이다 얼마만한
 時間이 흘렀는지 不安 焦燥
 --- 磨梳 --- 문득 수술대 위
 세서의 격은 記憶이 되살아
 난다 몸을 움직일수없고 두
 뺨고 달달하고 떨리던 말

진정 惡夢이었다 움직일래야
 움직일수없고 뒀래야 뒀수없
 은 안타까움 ---

갑자기 瘧波가 잠시 그치더
 니 고반한다 天来の 福音인
 양 반가웠다 期까지않고 모
 두들 후유 --- 관습이 샌다
 잘되건 못되건 하여간 우선
 마쳤다는 安穩感!!

惡夢의 三分은 끝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것이
 다끝난것은 아니다 神經學的
 인 刺激의 感覺를 받으며
 反文이라는 조카나의 惡夢이
 남아있다 숙제 못살아놓섯은
 포기한다손 치더라도 엉뚱한
 "던센스" 가 讀出하니 말이다
 "學으로" 가 "云크하기로" 가
 되고 "肉體의 律動" 이 "交代의 律
 動" 으로 轉 放拳하기 끝이
 없는, 웃을래야 웃을수없는
 마니 웃기에는 너무나 深刻

(68)

한 悲劇이다 아!
惡夢의 三分間 戰慄이며 恐怖며
惡寒의 三分間 이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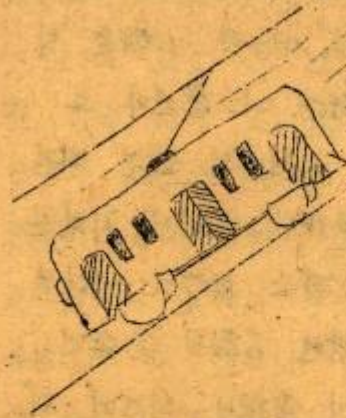
「밤비」

金永 也

어느 한 女人의 애처로운 矢戀의
눈물인듯한 너무나도 괴롭고 안
타까운 苦痛을 가타부듯한 밤의
風景이다 비! 그 言感 自体가
絶望 矢望 낙담 消魂不通 =
五時弄 希望과 상반되는 趣味를
表現하고 상징하지만 나에게 있
어서는 더욱 구슬프다 더구나
밤비는 눈물이 나도록 애처롭다
더욱이 봄밤에 비 만은 더욱
물리고야 마는 것이다 애절한 사
연과 정서가 함께 들전 한개의
영혼이 自己의 심회를 풀지없이
고요히 다가서는 침묵한바 동곡
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고 나는 간주

하며 버리고 싶다 더구나
폭속 바람의 적막속에서
홀로 서듬을 타고내리는
비는 마치 구슬픈 頂上
의 울음소리화도 같이 矢
戀한 女人의 버릇한 矢戀
의 눈물뿐만 아니라 精的
인 어떤 場面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 있으면 반듯이
창을 열고 이러한 場面을
즐기리라 처마밑에 떨어지
는 비 소리를 제아면서
먼 옛날 憧憬처럼 어린
이야기를 도란도란 재미있
게 주고받는 寸상들도 있
을 것이다 좀더 애수에 젖
은 삶을 가진 이 라면
처량히 떨어지는 비조리와
아울러 哀愁한 寂寞관에
겨워 그만 울음을 터트리
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삶을
향유는 그 사람에게는 기비

가 그들의 손을 돌구어 주
 는것이 될수있을지도 모른다
 밤의 온 시야에 생기고 조
 화된 비랑과 함께 내리는
 비의 찬층 高次的은 불조를
 풀은 이境地는 정작 아름다
 워라 아무도 보이지않는 비
 내리는 밤이기에 여기에는
 새살픈 추억이 되살아 온다
 그것은 二年前 꼭 이와같은
 밤이었다 세뱃 단지 두글자
 유된 表現이 애처롭다 나의
 가장 가련한 하나밖에 없는
 XX는 수없는 쓰라림과 근
 심을 안았으나 한 번은 꿈
 도 고히 안은채 한마디의
 말도없이 도라오기 힘든 속
 명의 석에서 떠나가 버렸든
 것이다 때때로 이와같은 밤
 이 찾아오면 곧잘 XX의
 기억이 또 나를 물리고 만
 다



歸路에서

—宋基勳—

내말야 오늘 너 술번머 먹
 었지만 말야 良心이 平할
 못하단 말야 너 月給 卞한
 기고 또서에서 "와이로" 먹었
 졌지 --- 썩썩거리는 處商通
 "색센트" 다 저번 減員맨
 용케 빠져서 아마 納稅成績
 이 좋은 게지 별 金財務
 만나서 이해할 좀 해야겠다
 왓자 지절 ---
 때마침 토요일 대포집 순매

을 다진 사라의 맨줄의 한패
 러 고부러진 말씨로 조잡한
 벼쓰칸에서 거리낌없는 高聲
 放談이다. 어느덧 三街를 지
 나 四街다 어느덧 연가 그
 피를도 내려버려 잔결 차안
 은 고요하다. 國都의 輝煌한
 夜은, 是를 뒤로 離却히 떠나보
 는 창밖에 不分明 은달린
 星鋪들의 着板이 제지어 지
 나간다. 지나는 着板들을 바
 라보며 손 끝으로 부지런히
 速記文字를 극적거리듯 적도
 이제는 싱거웁다. 지난번 간
 판 汗을 改書化 運動에 날
 라나 절저했는지 이전 都是
 漢字着板은 보아질 않는다.
 때론에 一見해서 是은 未
 어플 着板이 많아 이런것을
 생각는것도 심심치 않으며
 때로는 혼자 苦笑할 때로있
 다 "백시 병원." 이것은 病院
 가 聯想되어 나뉘지 않음

한것같고 "공제병원" 해서 어
 떤 機關의 公共病院인가 했
 으니 牙明 仁心病院이었다.
 "정충 공업사." 이것을 輕重工業
 으로 알면 誤解

"최XX 원구원."

두엇하는곳 인가 했으니 "龍城
 集院." "안이비안후과." 여기서
 "안,은 字인지? "假.인지? 등
 揀할수있다. 아무튼 우리 나라
 에서 漢字를 一朝一夕에 폐
 지하기에는 漢字가 너무나
 生活化했고, 國語化했다.

내림기는 과연 버렸다. 字數
 도 많고 精字 故事 雜院等
 흔한하고 變化가 하는 양이니
 類書 諷讀하기 알수다.

그래서 예를부터 「馬馬春總之
 說」란 말도 있다던가? 그래서
 인지 가문 별이는 강연회같은
 은곳에서 쟁이관 漢士들의
 일드로 부려서 가판 諷讀이
 나오니 말이다 (勿論 諷讀에

서 보이기 때문) 어렵고 정말 어려운 모양이다. 특히 速記한해는 정말 짝하고 더 욱 滄浪體 滄浪時는 背子如 流라할까? 精神이 그만 錯雜해버린다. 日前 보 新聞紙에 「冠徒」이라고 나왔는데 冠徒 冠費等으로 이루어진 浪虛徒 算과 비슷한 의견인 줄 어렵듯이 참작하나 무어 이라고 하는지? 옥편을 떠다 떠다 포기해 버렸지만 表意가 약간 어둡지 않으냐 冠徒 浪虛等으로 쓰이

어떻게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一朝에 漢文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利莫이 많다. 漢文에서 오는 德性 含蓄 이나 人格의 民族性 正義에 비해 人格的 民族性 正義는 漢에서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至 文章 用體에서 오는 便利함이 허다하다 強靱한 表現力과 含蓄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單然 他 文字의 追從을 不許한다.

- 1. 高事가 다 신중치 않아서 秀氣의 건을 건어보니 손발끝한 爽 소고 짜고 기전 빠진 略리는 잔커리 신수의 심정.
- 2. ??????????
- 3. 이해성 많고, 신중하고 풍자얼굴. 우뚝한 코.
- 4. 몰카 비 미약한 자이나가?
- 5. 번덕이 죽을듯하지만 제일이 기자방문.
- 6. 1~10까지 그중 2, 7은 뺀다. 1과 8은 근배판 8자.
- 7. 時代 木炭은 運動 1과 1體가 되어야 할테니 잘 몰라 가보아야 할 것이다.

성문

정

(72)

또 그 妥善한 省略法等으로 文章의 餘韻이 如何히 綴表에 達한다 斯리고 尙舊 類白法等 漢文 이니고는 맛 볼수 否는 莊重典雅의 妙味가 있으며 더욱 韻字의 用이 있으니 現代에 같은 스피드 時代의 通信 出版等 일이나 便利한가?
 祕算 數算 算術 算會가 歷史로 된다면 能히 알수있고 公認되는 公認히에서 漢字가 用되어도 表意에 支障이 無다 이를 간를 "공여히" 하면 易懂한 말이 된다 이나

우리나 비슷한 共通을 用는 나라는 이處 日本일것이다. 反問컨대 그들도 많은 漢語 끝에 대개 制限 漢字를 쓰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制限의 限界도 매우 微細케이 르는 事이다. 漢字의 數가 十萬이나 十萬五千이나 하지만 普通 用어는 三천 四五百개 정도 用어는 數가 十萬에 達할수있다 하니 實지 우리가 恒用 쓰는 單字는 얼마 用어라하고 보나 千로 以下를 用어지니 用어는 幾 少 用어라하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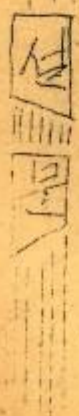
1. 마음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
2. 몸이 부리는 것.
3. 쉬어가 좋다.
4. 항상 좋은 생활.
5. 맑아.
6. 순, 즉라.
7. 평화, 목장생활.



持리 存在에만 쓰이는 精
字가 많으니 制限된 工夫를
이 方面에 集中해 생각해
야 代數觀念으로 選擇가 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히
너더운 문이다. 또 발 音
體가 漢字에서 나왔기 때문에
漢字를 떠나서 理解하기 힘
드는 경우가 많다 某日紙에
서 보니 西政學校의 校
字이라는 큰 校字가 制限
漢字이니 년간 '가'로 표
를 찍고 팔오독에 校字를
넣어 讀者에 理解에 便케

했으니 이런 번거러움을 언
제까지 계속할려는지?
그렇다고 말하리 새 말을
만든다거나 原語(사來語)를
쓰기는 甚한 일이다.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變字의
使用 類字 混用이다.
倭長을 倭으로 삼는 中國人
을도 복잡한 變數에는 宜한
되지 變字를 많이 만들었다
鐵 鹽 遷 兵 運(制) 등 原字
에 比하여 變이나 使用한지
日前 某日圖紙에 說이라는
變字를 쓰다고 오랑개 說과

~~~~~ 朴 葛 基 ~~~~~



1. 意識的인 感情에서, 逆境속에서 苦勞.
2. 그러 眞正하고 眞實한 氣分
3. 眞實하고 美의 所有者
4. 그러 眞正에 眞心.
5. 朴實.
6. 음식의 別미
7. ????????



(74)

우의黨을 어찌 混用할수있  
느냐는 讀者의 抗議文도 있  
였지만 나는 漢字쓰는데 대  
찬성이다. 더욱 類字 卽  
雖字를 易字를 代用하나 聯  
을 漢字로 代用하여 口際運  
승 生전용으로 쓰는것은 승  
관되면 우리들에 便利 할것  
이다 邇然 우리나라의 漢字  
問題는 어떻게 처리되려는지?  
지난번 看板 改稱 榜에 '旗  
圖多', '干布干' 등은 '기부다',  
'모시모' 등 古稱의 한결 自

然스러워 보인다

「다 왔습니다 내려십시요」  
車掌의 소리에 想念에서 깨  
났다 "아! 내려야지. 그리고  
또 고개를 넘자."



### 〈박 장 춘〉

1. 별 뚜렷한 동건 없었다. 건건 짙질하야 할까?
2. 광동 야외외.
3. 열근 수하하고 성격 명랑하고 스타일 좋고  
학식은 高女學 → 이 정도
4. 명랑한 공부를 해버라.
5. 신문들 본다.
6. 김치 찌개. 노란. 9.
7. 알수있나? 디래 알을... (X)

四道海圖

도람통을 끊어

L.Y.H 와 사귀리 못했잖이 안은 목사의

안타깝기만 하나 진정... 끝부분

그 주위의 것을

더듬어 보면서!

(사)

안녕!

(지시)

원하되 보시고 싶은 소 3번 (원본)

못 보라야지... (원본)

안녕!

(사)

안녕!

(사)

안녕!

(사)

안녕!

(사)

안녕!

(사)

안녕!

(사)

안녕!

(사)

桐樹氏 사랑하오!!

08/15

안녕!

안녕!

Miss Chun! 새 음운 끝내오



안녕!

書簡文

보통은 언니에게  
 → 李 瓏 照 ←

예봉과 다음같이 볼은 다시 나의 囑咐을 찾아옵니다.  
 따뜻한 봄날 언니와같이 봄櫻花를 거닐던것이 昨年같은나  
 다마는 벌써 四年이한 歲時이 지나갔군요 그동안 언니의  
 學業은 曠邇로운지요? 저는 언니의 지극하신 念慮로 速  
 成學校를 苦難히 卒業했습니다. 이곳 서울은 깃꽃인 날사  
 로 벌써 三日이나 계속되었지만 모처럼의 休日에도 꿈인  
 줄 모르고 내리는 바가 怨望스럽기도하고 애듯한 同情도  
 가니 비에 젖은 表情이랄까요? 보내주신 手紙는 반가히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修身途上에 있으므로 아령  
 다발 感情의 所有者는 되지 못합니다만 언니의 積極的인  
 아랫사랑은 저와같은 內向的이고 感傷的이고한 人間에게는  
 그보다 더한 滿足은 없습니다 언니가 大學校에서 겪은  
 眞實을 볼때에 언니의 그 어떤가 過去를 지니 印象과 情  
 熱的인 모습은 未知한 저도 후은한 感情을 자아내게 합  
 니다. 그러나 언니의 決斷性은 初志貫徹의 큰 原動力이  
 될것을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언니 만은 저의 必情을  
 理解하시겠지요? 저는 그 어떤것 卽 眞實. 眞理 幸福  
 滿足의 어떤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이것이다」

하고 마음에 '충족한' 무었을 發見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發見하기 爲하여 여러 親日들과 얘기도 해봤습니다. 映画도 보고 느끼고 듣고 웃었습니다. 文學書籍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 모르겠습니다. 내가 願하는 그 무었 한 자리에 達해서 2時間 ~ 3時間이나 達해서 얘기 해보았으나 머리에선 뱅뱅돌며 나타나지 않는것 이것이 都大體 무었일까요? 돈? 이것도 아닙니다. 그림 사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조용한 農村生活이나? 화려한 富豪의 生活이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情熱的인 사랑을 해볼까 어떨까 혹은 眞理를 探究할까, 어떨까? 자꾸만 몰라잡니다.

사랑하는 언니!

짧은 生涯에 이다지도 不可思議한 괴로움이 많습니까? 다만 自己의 忠實할수밖에는 微々한 存在! 이것으로 一生을 다치고는 싶지않습니다. 좀더 "어떤것"을 남기고 싶은 欲望이 불길어, 矢구치고 또한 쓰러짐이다. 언니에게만 이런말을 올립니다. 어디에다 호소하는것도 아닙니다. 언니! 제 얘기만 들어놓은것을 宥恕하세요

언니! 하여도 父母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줄 알아요. 黃金빛을 장식하는 서둘러 지금 막 향을 건다. 그제까지 밤의 戀情이 드러두면 秘戀의

(78)

속삭임이 나의 귀에도 재촉할것이었음 그곳 New York  
ARK은 다케의 族風들이 밤을 향락하겠지요 보고싶은  
연니여! 그 소꿉애나 벗어나라고 뉘 처나 물싸요 연니  
우분은 이만치고 바운딩에서 연니의 初戀이루서어 후집  
의 女神이 기러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연니의 사랑을  
바라여

1959 3 8  
瑞照 올림

- 渡美한 연니에게 보내는 片紙中에서 -



: 스마가 고통하게 되면  
침묵속에 가만히 숨어있으  
라 그리고 마음속같이 파  
고 들라 스마의 감정과 공  
상이 밤하늘의 샛별과같이  
그자태를 나타낼것이다 침  
묵! 침묵을 지켜라 :

- 류체프 -

↳ 「사랑한다」 함은 —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속에서 사는것을  
意味한다. ↳



- 톨스도이 -



벗 J에게

S<sup>2</sup>C 생

J!

片紙를 보낸다고 是非는 말자. 이제 우리도 理想을 찾아  
理想에 順應해서 行動할 때의걸 그러다고 너무 자만 하  
지 말자. 네가 冷笑를 보냈을 날 이렇게 난 너에게 위  
안을 얻으려 손을 보냈을 일을 생각하면 또한 날 이해  
할 줄로 안다.

하지만, 두번다시 希望을 갖지 않겠다고 마음 두터워  
다짐했지만 自身까지 못다보게 또한 우리들이라 그만 비  
계 찾아왔을 것이 아닐까.

그래 지음 있는 시골생활은 어떤지 어떤 흥미가 같은  
다부래도 以後 한번 날 찾아야만 될것 같아

벗이여!

이같이 마음 輕子석에 다시 되살아 오르는 너를 생각하  
면 정말 전일수 없군

왜일까? 나도 알수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크리스마스 전야밤 나가 비계 데해서 너무 심각했던 사  
연을 생각하면 보다 내가 헤아릴수 있는 일일꺼야 다  
만 한가지. 犧牲이란 觀念 때문이지 비계 하한 나의 戀  
友는 아셨겠음OK

(80)

j!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機會인것 같았다. H君이 永  
遠을 따라 갔지. 네가 혼술 팔라든 카볼과 양이 말같은  
곳으로 버려져 간후 난 될 보다 위해 죽어야만 아니  
짐다우 빛이 되어 죽어야 했다. 그러나 너 많은 오해  
를 저질렀어. 그것이 나와 나 사이를 누구나가 헤쳐 버  
릴수 없는 장막을 마련 했지 않나.

빛이여!

이젠 나의 마음도 많은 안정을 보것같아. 그동안 自身  
도 社會關係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것은 소식을 전해서  
잘 알고있었지. 정말 보내준 글 잘 받았고 많은 도  
움이 된것 같지 한번 감사한다.

외롭다고?

누구나가 생애를 영위하는 가운데 있을수있는 그보다도  
있어야만 할. 자국제가 바로 그것인걸.

그 고통감에서 우리는 침울함에 아니고 다른 무엇  
알라자면 진정한 어떤 행동을 창조내지는 해야한다  
면. 환영할 심일의 것이야.

詩人 '윌케'도 '사람이란 하루에 한때는 고통한  
시간을 갖지 않코는 되지않는다.'고

또 '카울트'의 유명한 소설 '불쌍한 사랑들'  
이란 책에서도 작가는 슬픈 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다음



말을 하게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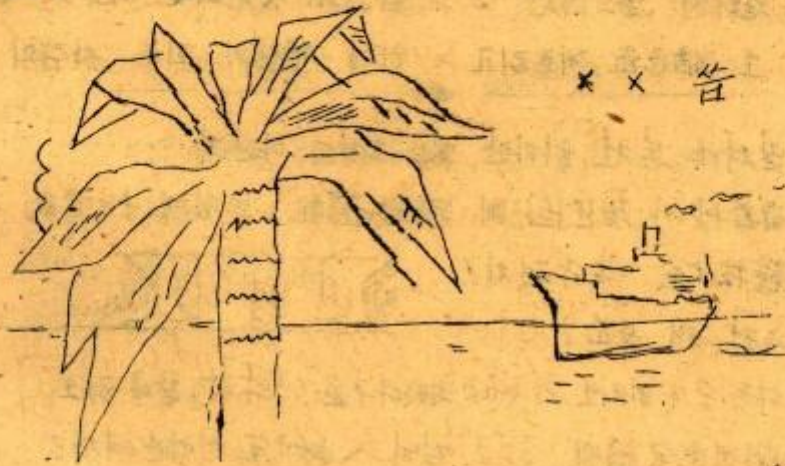
「외로움이 없는 나의 낚살은 불없는 바다의 고기와 같다」  
라고

j!

좀더 우리는 명랑해야 하겠어 보다 많은 내일의 설계를  
위해서 함으로써 우리는 좀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더  
좀 시비차 시비의 단축이 자유로울수 있는곳을 바라서  
같은 자유를 창조해 갈수 있지 않을까?

벗이야!

이제 까리의 우리를 버리고 卍의 "나"를 가지자  
마지막 한마디 내 기억속에 j를 잊혀지지 않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인지 신인지) 빌려서 이만 쓰겠  
다.





# 路傍草의 辯

오성근

韓兄!

期間은 어떻게 지내셨오  
이 못 난 아우의 消息을  
알고저 뉘이 뉘마나 애를쓰  
고 있다는 事實을 나는 잘  
알고 압읍이다. 그러나 무엇  
인가 하나를 이루어 놓지않  
고서는 뉘한테 까지라도 現  
處地를 알리지 않으려던 心  
정인데: 1 信念을 깨트리고

오늘은 期滿이 鬚을 들고야  
말았읍니다. 그렇게 暫時도  
떨어질 수 없는 因緣과 友  
情을 가지고 있던 뉘 에게  
조차 去就를 秘密에 붙였던  
것은 뉘에게 처한 友情이  
疎遠해 가는데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오, 俗念을 버리고  
自己的 뜻한바를 이루기 爲  
하여 僧侶가 되는 사람의

1. 밀쳐야 본전, 하지만 뉘은 그것도 아는데.....

... 奇蹟妙妙, 駭怪怪測, 精神錯亂, 一年服刑, 十年減壽,

2. 競技大會 바닥쳤지!

3. 2건 왜 못소?

4. 다른 공부 하시오, 꼭 해야 되봤다구오? 「악착」 같이 하오

5. 朝刊完全讀破, 그리고 절박 八數十分, 하지만 여전히  
아불속

6. Record Cake @ 코스모스 @ 99

7. 君子大疏行이다

민병설

마음과 같이 나도 무엇인가  
 를 爲하여 어느 段階까지  
 는 喜怒哀樂의 人間の 常情  
 에서 超脱함은 勿論 恩惠  
 나 友情이나 愛情까지라도  
 忘却한 冷血動物이 되고,  
 木石이 되고, 바보가 되고저  
 하는 微表에서 었던 것이  
 지요 내가 이러한 決意를  
 하게 된 原因은 나의 人生  
 觀과 나의 環境이 받는  
 制戔等 여러가지가 있지만  
 은 나로 하여금 이런 思考  
 를 갖게 된 動機中에 한가

를 窺에게 이야기 하고저합  
 니다. 무슨 이미 잘 알겠지  
 만 「流轉 三界中  
 思安 不脫斷

立身 顯父母  
 眞實 報恩者 란  
 釈迦의 出家詩가 있자 영습  
 니가 그는 泰山보다도 무거  
 운 父母의 恩惠를 뒤로 하  
 고 深淵보다도 깊은 孝子  
 의 愛情을 버리고 宮女로  
 꽃다발을 이루고 호화롭게  
 極致를 이루는 宮嬪을 버

- 1. 初志 究徹 하기위하여 捲土重來 하였습니다.
- 가슴이 : 박차서 -----
- 2. 積善 洞 分枝
- 3. 스포 - 스로 단련된 날씬한 ----- Lyps!!
- 4. 全力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5. 아직 모르세요?
- 6. ④ 逆々한 음식 (即 지방질이 많은 것) ⑤ 장미 ⑥ 2
- 7. 7-2 세 011

柳明愛

(84)

리고 나서 古今東西를 莫論하  
고 人間의 한결같은 追求의  
의미 되는 來自의 地位를  
현신작처럼 공개치고 俗호에  
처한 아무런 未練도 남김없  
이 어제의 父子는 오늘의  
거자가 되어 雲山을 向하  
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  
뜻줄이 莫逆하기 그에 비할  
바 못 되고 意志가 강연하  
기 그를 따르지 못 하지만  
석가가 雪山을 향 하는 듯  
한 비장한 각오로 현실의  
모든 을고 그른것을 清算하

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것  
입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는  
냐구요! 고향을 떠나 오늘  
날까지의 내 생활의 大綱  
과 心境을 兄에게 이야기  
할까 합니다. 허심란회한 마  
음으로 쓰는것이니 諷刺한  
심정으로 읽어 주시기 바라  
면서! 내가 태어나고, 나의  
뼈가 끊어진 續卍땅을 뒤로  
하고 산수가 설고 낮어든  
새향땅 더구나 君羊들이 活  
振하는 首都 한 북판의 초  
라한 容이 되었을때 나는

1. 직업을 택하기 위하여
2. 울창이 (♂) 사투신 구머가며 탁상공론
3. 男性의 성격을 나래 낼수있는 여성.
4. 시련이란 평상시에 성적이 그대로 반영함을
5. 공상에 잠기다.
6. ㉠ 출발가 막힌 갈비 ㉡ 대화. ㉢ 了자.
7. 連記者 (x)

岳 銀 出

일찌기 내가 발견 하지못했  
 던 새로운 나를 발견 했습  
 니다. 그것은 한 달로 말해  
 서 誇大忘想的으로 自身을  
 絶對的인 存在로만 생각했던  
 過去의 信念 → 井中之蛙格인  
 思考에 基因한 것임을 깨닫  
 게 되었을때 나는 失望의  
 느낌을 갖지 養을수없었습니  
 다. 이러한 동안 나는 무엇  
 인가 생각한 바가 있어 끝  
 에도 생각지 않았던 速記학  
 校의 門을 두드리게 되었습  
 니다. 兄! 나의 이 理解

할 수 없는 處事에 兄은  
 몹시 놀라리라. 그리고 이렇  
 게 恐惶도 하였지 너는 비  
 록 그 舞台가 좁기는 하지  
 만 우리 地方에서 自他가  
 認定하는 唯一한 速記士로  
 四·五年間이라는 동안을 各  
 界에서 活躍하던 네가 아니  
 야 笄冠의 나이에 高試額을  
 突破點으로서 頭上에 빛나는  
 月桂冠을 戴으려는 푸른꿈을  
 안고 不徹晝夜 싸우던 네가  
 아니야 무엇 때문에 目標을  
 向하여 달리던 걸음을 멈추

- 설문
1. 速記士가 되고저, 더 세야 되겠다는 것
  2. 경기 대회후 출전했던 그후에 느낀 바.
  3. K 같은 학생이라면
  4. 무조건 쓰고 시간이남으면 독서!
  5. 방문 열고 세수
  6. 구수한 팔밤에다 갖은 상념한 바글 바글 끓어 오르는, 고추장 후부찌게. 코스모스. 감오.
  7. 速記士가 된후 특고 갈터, 그후는 實力에 비추어서 - - - -



(86)

추고 黄金보다 貴한 時間을 消耗 해 가면서 다시 運記를 배운다니 이 무슨 癡狂病者의 잠고래 같은 짓이냐고

兄! 果然 그렇습니다. 나 도兄이 생각하든 것과 같이나니 그 이상으로 가슴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몹시 주저 했고 괴로웠고 또 지금도 이것 때문에 苦惱하고 있습니다.

(中略)

이제 一年間 兄의 代價

에 처한 總結算은 目睫에 눈 모를에도 制霸者로서의 使感을 부르짖느냐? 敗北의 苦北를 드느냐 하는 確定을 決斷지를 自身이 있음을 몹시 서클퍼 합니다. 然이나 勝北를, 敗北를 하면 勝者는 勝者로서의 거두는 바가 있을 것이요, 敗者는 그어로 또 變어지는 變태는 있지 않을 가오 成功의 無數한 거름퍼 미위에 피어나는 꽃이요 變태라고 생각되니 말입니다.

모직 人事를 다하고 兄의

[변수만]

1. 내가 希望하는 바를 達成키 爲하야, 企圖은 별로 없었다.

① 설 2. 차에 걸린 야유회

3. 날 이해, 쿠원래줄 여성. 순진파. 女生이던 女불고 기억자 몰라도 평후이다.

② 문 4. 新聞農講讀. ③. 時局, 만주, 코스모스. 3

5. 잠대 寢은 그릇을 벗어코.

7. 프레스 맨 (press Man) 이 되겠다.

公正한 判断이 내리기를 敬  
 履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나는 가냘픈 微風에도 흔들리  
 는 개울물이 되기보다는 사  
 나운 비바람에도 그 平靑을  
 잃지않는 大海가 되기 爲해  
 서 조그만 成敗에 울고 웃  
 는 응졸한 사나이가 되지않  
 기 爲해서 끊임없는 修養을  
 합니다. 나는 東에서 온  
 조롭게 자라나는 樹木이 아  
 니요 길 가에서 못 사람들  
 의 발 길에 밝히고 뜰기우  
 고 하는것을 及得當해도 期

하고 꽃을 피울 열매를 맺  
 고야마는 강인한 生理를 가  
 진 踏候草로 自處합니다. 비  
 록 거센 風波에 시달리어  
 어두러지고 虛山준령을 넘기  
 메 기진맥진 할 이 가시밭  
 같은 社會를 살아가기 爲하  
 여 涙을 흘리고 汗을 흘리  
 고 피를 흘리면서 까지라도  
 七転八起, 百折不屈하는 同志  
 를 잃지않고 不死鳥처럼 나  
 의 가려하는 길을 向하여  
 다름 할 수 있을때 나는  
 人生의 覇者로서의 凱歌를

심문

1. ④ 一般秘密 ⑤ 입맛이 쓰다.
2. 三分 깨알
3. 눈 딱 감고 골라 잡자. 決心부려  
보안안자 소용 있겠나?
4. 錄音機나 사가지고 始作 하시오.
5. 新陳代謝, 別것 다 듣는 건
6. ④ 주로 액체身. (잔 넘어 가지 좋다) ⑤ 회상키비. ⑥ 5
7. 예측 할 수 있으나 3호

其  
專心

(88)

부를 수 있을 것이며 人生  
의 勝利者로서의 月桂冠을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생  
각 합니다. 너무 一方的인自  
身に 처한 慰安 들어 놓아  
서 미안 하군요 理由야 何  
何向에 消息조차 伝해 주지  
못 했던 所以然에 처한 謝過  
를 거듭하면서 이 부단 奮

투를 놓으려 합니다.  
부디 兄의 앞날에 天地神明  
의 加護 있기를 肅然한 마  
음으로 빌며 兄의 建業을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4292년 2월 1일 밤

容窓에서

聖均書

명심하시여 삶의 보탬이 되어주소

\* 홀로 있을 때에는 自身の 罪를 생각하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罪를 잊으라  
<中國의 이언>  
\* 時間을 슬데 없이 보내는 것이 제일 큰 사치야. <후량크린>

성문

1. 비라 갈후 經未 되는 悲劇
2. 우리 生涯, 最高의 痛.
3. 나의 아내는 韓國 女生
4. 太陽을 向하여 달려라
5. 날이 새면 醒來나.
6. 哀情의 實, 愛情의 實이다 나무 日 08/15
7. 사람 팔자 알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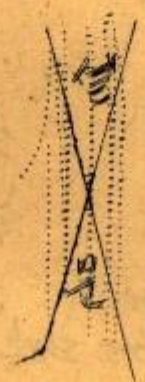




亂行文

# 瑞山訓練所記行 朴景植

바람이 차가운 밤공기를 헤치며 달리는 코딩열차에 몸을  
 두 날이 부술 1월3일 아득한 기억없이 거품과 같이 깨어  
 는 친구 K군을 변화시킬 가는 날이었다 차내에서의  
 좋은 상현과 같은 듯 고산악에 도착하니 5시30분은 알  
 고 있었다 예상외의 흥행이 일어 서로 다짐 하였고 나  
 차음수는 같이건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들이 드  
 를 보거나 다시 30리 길을 달리는 '강산의 개' 되었다.  
 뒤! 오늘 몸이 흔들렸던 듯 무섭게 차운 들이 열기만  
 보는 제이의 부채 이었다. "아스팔트"에는 바퀴바 아래  
 만 평면만 드르위에 비키는 줄라자자. 강을 못다 한  
 자양수의 추억과 피고 속에서도 K군의 열정이 마리를



- 1 對命令에 대해서 마리가 아피오
- 2 別名 展示會
- 3 善女中의 美術 (?)
- 4 봉선사 寺시모 간 쓰기 상문해
- 5 아 ~ 기지개를 켜 ---
- 6 卍 선녀담 卍 장미 ㊦ 1 2 3 4 5 6 7 8 ---
- 7 7 개 세라 세라 Que Sera Sera

술  
 福  
 精

(30)

스러 지나 갔다.

운명! 너무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구도 노릇도 운명의 의뢰해야 하나? 잠시 못할 존재 이고 하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능력은 여지 없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퇴폐주의 사상?! 전쟁의 비극?!

-----  
"북기요오 — " "멍멍멍 —"  
감정 손을 떠 보니 "털실"의  
합성속에 안아있는 품이다  
추위는 더 가혹한 것만 같다.  
구불이 돌면서 차는 잘 달  
린다. 슬픈 차와 밝아져서

본이 '상쾌'라듯 커다란 피  
곤 에는 그만 깨워지고 싶  
다. 이윽고 7시 30분경 목적  
지에 도착하였다. 사람이 많  
아서 복잡하면 곳에서는 이  
아기를 돌리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말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서 속보로써 변화장 여  
는 문을 들어섰다. 여기가  
세칭 노산 칼리지 (Lonsan  
College) 인가 생각하니 무  
량의 감격과 감회를 느낄수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부  
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각  
종이 별로 변화할수 있도록



- 1 文化수으로의 배위 보이자
- 2 별부
3. 대졸자 (大卒者)
- 4 인내
- 5 변신처조
- 6 ㉠ 中.오라 ㉡ 장미 ㉢ P.비
- 7 Der Des Dem Dem 필대로 따라

李  
滅  
恨

만들어 놓은 '테트'는 자물에  
 있는 자물은 못되었고 '스토  
 브'가 있었으나 너무나 심한  
 외풍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정도였다. 그  
 운에서 한바나 어어니 안  
 해 부이 모두가 소수 마  
 관 운수를 관하여 추위와  
 싸우면서 아픈 소원을 만나  
 기필 시간을 기다리는 광경  
 평면까지 못한 관 사람으로써  
 소개를 다수 숙의일수 없었  
 다.

각각은 사람들이 추위의 타  
 인지 9시경에야 겨우 나왔  
 다. 소수와 심명 수비를 알  
 리면 전화로의 연락하는 모  
 양이다.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참으로 지루한 시간  
 이다. 몇번은 쉼이나 가라  
 이 없던 저 수들은 생을  
 어릴듯 인접이 왔다 차라  
 나오는 해프 들의 모습은  
 능동적인 사람이라 쫓기 할  
 들다. 차원도 그럴거니와  
 추위는 그 누구에게도 반갑  
 지 않은 선물임을 틀림없다.

8시가 되면 나로서는 연

1. 좀더 나에게 설명
2. 무슨문?
3. 출세 뜻대로 될까?
4. 남보다 더 써라
5. 우선 밤부터 먹고
6. 이 뜻대로 생각해 주지만 라면 위도지  
 @ 0? @ 3
7. 나라고 열겠오 「라비인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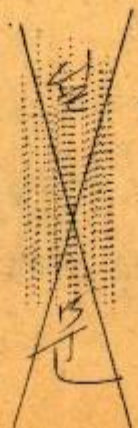
代  
 養  
 味

가랄리는 사람의 마음이란  
 마음이 몹시 안타까울때도  
 K군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  
 니 그때의 심성이야 물론  
 평생 잊리지 않으리만큼 마음  
 의 뿌렸다. 쟁이나 맞나기  
 못할까 같은 그 순간에 두  
 눈동자가 부딪리는 그때! 약  
 속이나 췌담처럼 눈물이  
 펴 돌았다. 그렇게도 고통받  
 은 아기가 일시에 사라진  
 듯 서로 손을 쥐고 -----  
 조용할 수 없는 「시트」 속에  
 서로 좀 조용한 곳을 찾을

려고 하니 찾을 수 없었다. 우  
 사 추우니 슬프서 대신 하고  
 지 슬을 아슬래 R군의 성격  
 도 이곳에 온 만큼 변하였다  
 눈전을 알았다. 그렇게 여위지  
 는 않았어 짐어진 세월 제  
 미를 벌써부터 기다리는 K군  
 의 심정.

죽어있어 함께 자카탈라에  
 식사를 마치고 뽕산에 올라가  
 유쾌하게 노는 때와 오늘 이  
 시간을 비교해서 인생은 무상  
 함을 다시금 느꼈다. 그 자리  
 에서 함께 오래도록 지내고

- 1 일시적의 흥과 낙과 취재는 후회함
- 2 무연한 기회에 손 아대를 가져 봤으면
- 3 현모 양처 될수 있는 여성
- 4 속기를 배울수 있는 정력이 있다면  
 다른 방면에 치중을 하수
- 5 기상 제일 동강이 되 이겠수. 부엌이나  
 들어가 보도
- 6 ㉠ ㉡ Chirpanthemum ㉢ Double ten
- 7 司法機關 沈遷度



살았지만 사실은 지명이나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  
건강과라는 신문의 약수를 나누며 마지막 보살에 가지 돈  
을 받는다 다시 강연에 돈을 받았다 같은 어떤 한 광  
만 받았을 1월 4일 이었다.

(-NK)

나인스 데이라

□ 清掃勸勵와 會費徵收의 가장 要諦이다  
(學務課의 目的)

○ 虛空에 乘空手乘라 輕便한 妙術  
(學務會 別)

○ 原稿 이 原稿 打令 카다가 必히 精敏히 다려  
(文化部)

x 逸被誌는 양세로 200 page 가량 輕便한  
合意를 보았었다.  
(文化部)

- 1 나로 커리로 끌려간 했으니 자금 대신 후원받
- 2 아무 말도 못하겠다
- 3 나에게 맞은것은 그러나 안을 것 같대
- 4 자력이 있어야지
- 5 PCm 반대
- 6 먹는것은 (부다 못다)
- 7 졸업후 30000 원출

會  
恭  
鎖

逸波 노타리

- ◎ 校長先生님 寫眞 4장이 못됐어. (逸波 孤見院)
- ◎ 「총각 代表 最高 委員 職을 辭職 했습다. (관공 새참)
- ◎ 七期에는 三回 黨이 별조 없어. (미소 邦)
- ◎ 내가 純種 이야! (珍島 거. 金)
- ◎ 내 코는 百萬 환 짜리야! (만보코)
- ◎ 경상도 문둥인디 눈 같이 비바 질락 커서 진멸장까지 부쳤레이 (사이클 宋)
- ◎ 임마! 진 一 주 콩지름 (콩 4물) 4국 모르나 참 맛조레이 (지지왕왕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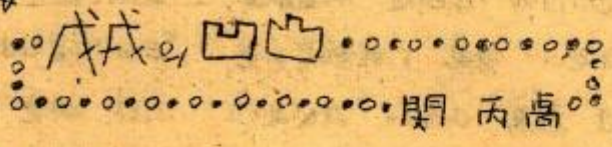
공설 卒業 1917

작사 七期 양내 작곡 부러진 연필알

春夏秋冬 地下室에서  
 몸정어 다리 굵듯이  
 비루하장 淋은것노  
 한대의 꿈이였고  
 이제는 六万환 짜리  
 두갈레 길에서  
 소리높여 한숨만 짓고 있다네.



女 回 眞 文 女



一年이 지났다.  
 참같은 한해, 허무했던 열  
 두달..... 우리는 눈을감기  
 쫓아온 언제까지도 잊을래  
 야 잊을수없는 아나 잊지  
 못할 一年이였다. 도리켜  
 보면 速記學校에 드려온때  
 가 어제 같지만 어느새  
 한해가 지나 卒業이 발앞  
 에 닳아오니 세월의 빠름  
 이 새삼스럽고 人生의 덧  
 없음을 말하듯 많은 열풍  
 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速記를 배운다, 速記能力者  
 가 된다. 이런것들이 우리  
 를 誘惑했다. 우리들이 誘  
 惑을 단했다. 우리는 單  
 純했고 악당 바르르렸 했지  
 만 現實은 愚鈍했나보다.

結果만을 생각했기에 지금  
 보다 나은 꿈에 醉했기에  
 速記學校 九學으로서 마음  
 으로는 모두가 速記士가  
 되었기에 ---- 「No pains  
 No gains」 이말이 지금  
 머리속을 스쳐간다. 地下로  
 침하하고 속속한 먼지 구  
 덩이속 囚徒의 苦悶處와 같  
 은 鐵籠으로된 몇개의 말  
 달관 窟을 그곳으로 移  
 의 발을만이 보인다. 補防  
 車의 붉은 빛깔도 스쳐가  
 다. 가느다란 햇빛도 스며  
 들고, 마치 「가다꿈바」를 歌  
 頌시키던 童子들같은 두심  
 의 기동. 天井에 나붙은  
 몇개의 스틸. 지갈, 工事  
 하다. 天井에 불다니 ----

(96)

한다리가 부러진 세발 數卓  
나란이 걸린 「代棟長」 들  
의 惡黨 그속에 의정(?)  
모습을 한달에 마흔번(?)씩  
들어고치던 열쇠꽃이 -----  
모두가 붉은 母枝의 모습  
이다. 사람은 누구나 成人  
이라면 職業을 갖게 마련  
이다. 또한 그들은 보다  
남은 삶을 爲해 그들의 競争  
은 熾熱하다. 이런것들이  
우리에게도 例外는 없는가  
보다. 一年차 우리들은 十  
萬送良의 費를 二百三  
의 敎席에서 孔學試驗을  
치렀다. 그리하여 우리를  
六十名은 榮耀로운 「三十萬  
送良」으로 當당히 孔學되  
었다. 速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맛봤다. 世上에는  
많은 學問 技術이 있다지  
만 速記와같이 奇상하고

또한 難學이 있을줄이야!  
「三日不讀口中生荊」이란 말이  
있다. 책을 사흘만 안 읽  
으면 인속에 가시가 돋긴  
다는 惡學을 許려하는 말  
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速記는 그것이 問題가 아  
니다. 「一日不筆 手中生荊」이  
라고 나는 斷言한다. 혼자  
그대론다. 조금도 이말은  
誇張이 아니요 다만 速記  
를 배운사람이라면 누구나  
共鳴할것이다. 實은 速記  
가 보듯이 멋진것도 아  
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여야 ---- 才天 又 才地 頂  
말 更紙를 팔아서 自己의  
키(身長)만큼 써야만 速記의  
能力者가 된다는 것이다.  
끝까지 남은 우리 40여  
명은 그것을 實踐했다. 진  
정 우리는 壽禮(?)인가?



우리들의 一年은 피눈물나  
 는 無味乾燥한 忍耐 努力  
 (말은 쉽다) 곧 그것의 延  
 長이었다. 어떤 親日의 암  
 치(?)있는 計算을 했다. 우리  
 들 各者가 一은(軍)선은 京  
 釜線을 二번 往復한다는 것  
 이다. 나는 自身の 忍耐力  
 에 다시 한번 놀랐다.

一年이 지났다. 정말 꿈  
 후한 같았다. 總論을 하기  
 에 모든 것을 忘却해야만 했  
 던 그리고 약차스레 지내  
 던 열두달! 지루했던 하루  
 하루를 이제는 焦燥속에서  
 그 남은 몇일을 소꼽는다  
 언제까지라도 腦裡에서 사  
 라지지 않을 一年! 그것을  
 잊기에는 二十代 우리들의  
 時間이 너무나 高貴하다.

一年이 지났다.

나는 이제 모든 同僚들에  
 謝詞을 해야겠다. 나 自身  
 이 卑屈함을 -- 競爭이란  
 보이지 않던 懷幕에 가리워  
 좀더 가까이 못했던. 나.  
 눈앞에 보이는 몇 조수의  
 뺨만을 찾던 나의 偏狹한  
 마음. 지금 나는 얼굴이  
 간지럽고 달아오름을 느낀  
 다. 모든 곳에서 나는 용서  
 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또  
 으로는 좀더 親交의 機會를

一年이 지났다.

후業이 닦여온다.



설문

1. 구차스런 辯解보다는, 발음의 불을 끄는게 손쉬운 善行.
2. 諸公을 너무 많시라고 /x 팔자 x 分前이랑께. ....
3. 愛人과 對談 속에서 自身을 究明하려는 善行.
4. 人生을 노어란 줄 아는 婦孺의 女愛이 그림소.
5. 人生의 難對盤에서 速記士라는 職을 目的으로 삼지 말고 手段으로 삼으시라 ~
6. 食而根本으로라, 食事堂若의 悲哀.
7. 나의 理想의 實現을 위해 變換하는 나의 進路를 가려라. 利害의 間에서 再會의 날있기를 믿어 버치 않습니다.

1 20 97

金言 서적과 친구는 적고도

좋은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서양의 격언)

설문

1. 一人一技
2. 아름디있던 옛 追憶
3. 健康이 第一, 逆境 속에서 웃는 女性
4. 끝까지 最善을 다 하시오.
5. 日回 Memo.綴를 만져 본다.
6. 사랑이 베풀수있는 모든것. 우공학 38P 字集
7. 생의 指標를 따라 내 理想이 引導하는 커다란 未來의 使命을 다하는 가운데 變어보려는 것이다.

20 97

# 統一의 싹은 學園에서

禹 錫 出

오늘날과 같이 이땅의 젊은이들이 부요와 초조에 떠려 허무와 절망에 흐느껴 우는 때를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요, 초조, 허무, 절망, 이런 말들을 學園은 流行語가 되심으며 오늘날도 三千万의 눈에는 이 정상을 볼려고 눈물이 마르지 못했습니다. 몰락해 가는 西歐文明이 갖다준 孔子時代의 전통과 두개의 "카레고리"의 싸움을 자아낸 무서운 장벽들에 끼어서 이땅의 젊은이들이 精神을 잃고 있는 것이 광이 아니라면 나라는 두갈래!! 民族은 도란에!! 싸운 반세 풍기는 現狀의 수습자

로 나설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친 전능자리로 교문을 들어섰으며 조수의 사이렌을 듣고도 아무 생각없이 살리는 중압으로 하루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 오듯 퍼붓는 적진의 폭격은 무릅쓰고 된 두를 위하여 세법이나 말을 달려 승전의 영혼이 되었건 화랑 관창이던 이 민족의 깃이었고 범약한 여자의 몸으로 아녀마디 차모린 민족의 분노를 참을 걸었어 敵將을 쳐안고 돌독으로 뛰여 온 壬辰時의 學生 韓介의 丁史도 우리의 깃이었고며 외침듯이 기종진 말을 한하

여 이 땅을 밟아오는 애들  
 들로 향하여 후배지마의 들  
 을 언뜻본 후배山城 男女老  
 少들의 잊지 못할 눈물의  
 結晶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  
 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같이 勇敢하고 피끓는 情  
 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불같이  
 이는 先烈的 熱血을 더듬고  
 그위에 진정못하는 救亡의 情  
 熱을 느껴십시오. 특필의 缺  
 口재상 "레스마크"는 말하기를  
 "그나라 청년들의 눈동자를  
 보아라. 그나라 시인들의 발  
 걸음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나라의 장어를  
 장안. 감수있으리라"고 말했  
 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  
 하들의 말을 보고 "오-저말은  
 슬프다. 저말은 이 마음을  
 불려 주는 구나." 하는 오마키

감상력이며 정신바친 敗北의  
 幻象을 만한다면 우리는 전  
 습니다. 우리는 그 병병한  
 살에서 원대한 사상과 이념  
 을 發見하고 울부짖는 救亡  
 의 正열을 감을, 勇氣를, 느  
 켜야 합니다. 우리가 쓴 한  
 page의 魂을 언족이 다 붓  
 킵고 흐느껴 울수있는 피가  
 끓고 심장이 뛰는 것이어야겠  
 고 우리의 걸음은 빨아야  
 라고 우리의 눈은 빛나야겠  
 것입니다. 사치는 個人主義  
 思想에 民族魂을 팔아먹고  
 實力있는 유학에 병들어 가  
 면서 여러분은 잊었습니까?  
 글에도 못읽을 六.二五 원  
 한 사모친 - "四 후회 빨정  
 이 들에게 죽은" 이 情熱  
 내 구이. 나는 참을수 없오  
 그 울부를 못 풀고 그 魂수  
 를 못 잡고 전망중에 걸려

가는 내 백성 내 친구들에  
게 외치노나 (回想하라 그리  
고 이를 잘라! 回想하면 이차  
리에 여러분들 ————

男使은 전선가서 죽고 발을  
위하여 女子로써 鞋것을 다  
러본 農村의 안태가 천 보  
르는 어린자식을 다리고 살  
다 살다 못해 아각도 동이  
뜨기전 내고픈 자식을 데리  
고 마을밖 리다간 우물가로  
나왔읍니다. 먼저 등에 얹은  
것들이 어린것을 우물에 평  
등 집어넣고 나서 바들 바  
들 떨어와는 비살나 제권아  
이를 미저 집서 넣으랴 할  
때 "천마 발 산달레게 날  
넘지말어,, 령주치마에 매달려  
살버듬치든 어린말을 볼 짐  
은 어머니는 그만 말을 저  
만은제 우물가에 기절해 버  
렸다는 눈물났이는 들을수없

는 이 슬픈 이야기는 오  
글도 계속되는 한 表現이나  
이 어찌 복잡을 치고 흥족  
할일이 아니겠은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不孝막심한 우리를  
어머니 어머니, 너머널은 우  
면 이토록 견여주셨건만 우  
린 어머니께 무얼 드렸은니  
까? 우리를 웃기시려고 너  
머날 우셨이다. 어머니는 조  
국! 조국은 내어머니 그  
사랑에 못견디 나는 외치노  
나 "너아를에 눈에는 무서운  
산봉우리 만이 보이느냐 나  
의 눈에는 그 곁에 기름진  
옥르만이 보인다"

ALPS에서 그의 部下들에  
게 외친 나폴레옹의 이 한  
마디가 나이롱 선승에 출고  
나졌는 우리의 카메드 들의  
야 할것이며 万世의 우리와  
천상의 빛은 이 2의라크의

(102)

위에서 너희들의 비겁한 行  
動을 보고 의를 면하여 흥  
극라리라한(나포제웅회) 雄辯  
이 포위장소에서 크더지려는  
(그 部下)들에게 보안 아니  
라 판문점으로 귀비브도 까말  
게 있어 버린 우리들에 커  
에도 물려야 할것입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국가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뽕노이, 아전, 비  
칭강이요, 량강이요, 동삼곡이  
던 우리를 낚지라도 오늘  
다시 주먹을 부르려고 건  
머리는 깎아버리고 건 소매  
는 건어물이며 八百萬 鎊은  
이 관덤머리 피나는 三千里  
의 뚫어버린 내똥을 찾아서  
본기 할때는 온것입니다.  
베르킨 城門 밖까지 餽兵이  
쳐들어와 아우성치는 가운데  
주요의 鎭 數萬의 守將을

몰아놓고 화연호를 번하다가  
물소 종예를 부르려고 미친  
듯이 적진으로 달려 들어던  
독일의 후계 회에, 그대를  
아우성지며 따르는 결단 民  
族의 성난 우리들, 무서운  
國族의 魂, 무서운 知性의 魂,  
그들은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는 金  
門島 馬祖島의 共產變略을  
보도하고 있으며 연방적으로  
신로운 나체의 즉장프로 大  
뽕노의 懸壺 자살 下만을  
占領한 鎭 廣고와 砲火의 關  
한 자위부인을 기개하고 외  
다면 우리는 兇惡히 돈 世  
소에서 살고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고통받은 뽕노 버러  
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방  
약과 조흔은 망각에서 레메  
연수는 없으며 改選은 건망  
증에 안일할수는 없는것이니

다. 아비한 共產主義의 醜惡  
 은 이땅에서 十二萬人의 兵士  
 들의 무덤을 남겨놓게 巨馬  
 高地에서 "그런 비엔프로"에서  
 다시 鎗門砲로 그들의 흉부  
 를 들어내고 있지않은가?  
 과연 共產黨의 위험이 크다  
 게, 뱅뱅곡곡 自由軍에게 이  
 다지도 주포나 공포를 주고  
 있음을 땅속에 파묻힌 레닌  
 과 마스의 영혼이나마 안다  
 면 그들은 눈물로써 온 人  
 類앞에 그들의 晝晝 生存의  
 과오를 사죄 하리라 믿습니  
 다. 수르프지여! 피의능선이여!  
 鐵의三角지대여! 죽어 가면  
 나의 戰友여! 그들의 피로  
 물들인 안동지대가 우리를  
 殉國으로 돌려 보냈다. 그리  
 나 우리는 吶聲 목불야 울  
 부짖던 "이모"도, 목에서 피가  
 나면 演說도, 三八線을 넘은

것 같던 그 장한 의기도  
 깨닫고 있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외치노니 우리는 이  
 모순속에서 떨어져 떠나게  
 썩는 한알의 밀알이 되자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석자! 재각기  
 중형된 감투싸움에서, 석어가  
 그 우리의 현실속에서, 불타  
 깎 지성으로 묵묵히 석자.  
 學生은 殉國은 이眞理를 불  
 들고 목이 메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아 기만과 알류 갈  
 등으로 착종된 이 現實속에서  
 勇敢히 뛰쳐 들어가 불타는  
 의기가 장렬한 民族愛로 내  
 한물 祖國에 바치기로써 스  
 千萬을 다시 갖고 내 한물  
 희생하며 눈물나게 석어도  
 三千萬이 사는 걸이라면 불

(104)

불고 불리라는 잔잔 여국산  
 의 회포만이 이 민족을 살  
 리는 길인것입니다. 기혼과  
 절음으로 풀어진 우리의 마  
 음을 타며여 용수의 잔 단  
 풍자도 뚜렷이 우리의 무령  
 잔 노래를 외우며 後年  
 先例이 준 배달 민족의 장  
 은 머리를 불끈 뚫이고 주  
 의를 부르리고, 우락 부락  
 휘머 나오는 마음 경복선에  
 서 함경선으로 기차를 불리  
 여 屍山屍海를 넘고 넘어서  
 焦土血野를 밟고 밟아서 이  
 민족의 行列이 저 큰케르린  
 의문까지 달아서. 심란 이

민족의 곡맹이와 밤맹이가  
 순日戕의 대가리를 부시고  
 치리고 구비치는 내 故鄉  
 尸骸 하늘에 떨어 날리는  
 大槓旗를 우리의 목매어 우  
 주, 장격의 날까지 統一의  
 삭은 樂園에서 석자! 사우자!



한개의 거짓말을 믿게하기위하여는  
 2010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바다에 빠지는춤보다 술잔에 빠지는춤이 많다.  
 머리는 지혜는 잔되 지혜는 절망이다.



創作

# 님 만 이

비! 비! 비! .....

정녕 甘雨이나라! 안타까히 기다리고 말조려하든 잠은 나  
의 마음속에 더 아니 온 이 누리에 가득히 채워 주었으  
가슴과 이 마음에 쌓이어서 러더이웠소. 온 땅은 메마르고  
人間의 心情 또 人情까지도 異國에 차를 온 異邦人이 갖  
는듯한 느낌을 주신 있었오 期必코 찾고자 熱烈하고 踴躍  
하던 心은 잦아왔오 매마른 온 누리와 갈증에 러더이던  
山川草木과 아물러 人間사에 沈어서는 沈될 곡물과 채소들  
은 얼마나 心을 그리워 하였는지 모르오 또한 여물스러운  
大衆의 心은 사라졌오 人情은 뒤살아오는듯 하면서도 不  
足感을 느꼈오. 님이여! 온 누리의 心은 당신이로. 당신  
이야오 그런데 어찌 이리 늦으셨니오. 말 조림과 안타까운  
과 사랑을 보려 하였오. 님이여! 마음껏 기뻐하시오  
즐거워 하시오 당신에게도 踴躍하게 시리 하였오 사들한 바  
람이 부오 님이여 오오! 님이여 들어가사이다. 차거운 바람  
이 매서히 불어 오나이다. 어서 어서 들어 오시오 釜안에  
는 沸騰한 湯기와 차디찬 凍동자 같은 寒風을 파란 불이  
五穀雜糧을 甞라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있소 비는 잠시만이라  
도 바람이 불어오오 님이여! 하였오는 時節은 무궁무진한듯

(106)

이 마구 채찍질하면서 정처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는 廣野  
에 신기루가 비치고 너이며 가지마오 이것은 당신을 연혹  
하는 大自然의 마술과 같은 것이어서 속 나이다. 절제와 풍  
요한 魅力을 지녔다고 하지만 이것에게는 屈服의요 벗어  
라라고 하나 이 역시 두 말 뉘는이다. 그러나 이 관가지마  
는 알되시오 양희오 정녕코 어떤것이라도 使犯과 아울러  
근복시키지는 못하오 그것은 당신의 널의 가슴안이 쌓이고  
쌓여진 널의 쁘노키에서의 그 누구나 맛을수없는 사람이외  
다. 널과 더불어 있으면 이 마운이, 이 정신은 幸福하지오  
영원히 영원히 지속될준만 알지오 널의 目的을 끝낸 어떤  
해운 마운것 즐기기로 하지오 人生의 目的이란 무엇인가?

널이다! 삶을 영위하는데에는 왜 이다지도 고달픈가?  
나만이 아라겠지요 고작 六七十년을사는 동안을 그러나 나  
는 널의 큰 사람을 품는다면 왜 누가 나더러 고달프고  
고통스럽다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달리쳐서 마구 꼬집고 때리고 차겠어요 그리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더불어하겠어요. 아따도 飛騰이겠지요 나는 나는 널  
의 사랑을 고리 고리 이 마운에 채웠으니 그 무엇이 고  
통스럽고 고달프거나 나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아니 아 쁘노  
에서 가장 행복자이라고!

널이며! 욕하고 못판것을 한다고 거짓지 마세요. 만약에  
귀찮는다면 아.....고만 두셔요. 結果라는 것은...  
아마 이것은 사랑일까요 愛情일까요? 이것은 당신을 사모

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말로 날으셨지요 변명도  
나내요 뉘름이예요. 남이여! 나의 남은 당신이예요 석가의  
영우 중생이므로 예수의 남은 모든 인간이 나내야요 그러  
나 나의 남은 중생도 모든 인간은 나내야요

그 누구가 너보러 석가와 예수의 남과 같다고 한다며  
는 나는 나는 성의껏 마음을 다하여 중행하고 남신만이  
나의 영원한 남임과 아울러 나의 同人-~~남~~이라고 말 하겠어요  
그 누구라서 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남만이 나의 출  
처야요! 남만이 나의 마음속에서 존재할수있어요 남만이 나  
의 幸福者이야요! 남만이 나를 주후히 만들지 않아요  
남만이 나의 남이야요! 오오!

남이여! 이 마음 이 사람을 고리 고리 받아주오  
남이 나이고 내가 남이 나이다. 남이여! 가오이다.  
남에게요 永遠에서 永遠으로 -----

X X X

천록같은 하늘에서 언제 나갈줄 모르는 구름떼가 울려  
서 있고 저 멀리서는 아름답고 고요한 ..... 三拍子의  
輕快한 크롬의 푸른 "따름江"의 랑쓰가 너름과 더불어 더  
져오고 있다. ----- 남은 手帕에서 -----

동해 雙 島 湖 ① 나부 중선 칸하 (아름다 나는 結核 草) <두명사>

② 그 男子의 罪가 아니다 <同情者>

년센스 스테이션

學生會員! 最後까지 會費를 납부하  
 德分에 十年成壽 韓의 고압  
 아아 돈 돈 돈 돈 돈 지긋 지긋, 오만상이 쟁그려  
 집니다. < 財務部長官 >  
 슬로 슬로 퀴퀴式으로 갈려서 필이가 외나!  
 < 速遇生 >  
 爲 < 期生의 專用漁場이 있으니 많이 利用해 주  
 시를 仰請 해주세요 < 狹窄口主人白 >  
 탕탕탕! 무직판 뚝뚝! 얼어 얼어 뚝! 탁탁탁.....  
 德分에 實力을 最高度로 발휘 하였은디 < 스-포프 >  
 學生會 會員들이 마지막의 成成年을 보내면서 망념이  
 나서 그저 폭삭하고 꺼져. 망할것만 바 년(年)이 되고  
 말았은 초 會員년비를 감사 하는데 디유 (忘年会)  
 (리리리리 랄라서 오리 소리 오리 오리 빠저 나가는  
 데 最優秀의 명예를 奪음나다) < 청소 기피생 >

K-S 通信

創作



想

金謙善

멀리서 기차 소리가 이렇게 들리었다.  
 다른 날과는 달라 보슬비 오는 밤  
 이렇게 불을 켜고 누워 있으면  
 아련히 머리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回想이 있다. 그것을 생각 할 때마다  
 나는 다시 못할 하나의 미소를 발견  
 보내며 그 시절의 마다 現狀에 얽매어 아니 現狀에서 해  
 이가지 못하는 내 自身의 능력에 한 기차 회오를 느껴보  
 는 것이다. ----



x x x

英을 알게된것은 기차소리 나른날 어느 밤이었다. 언제  
 어느 1밤이면 서울로 汽車가 집앞을 지나가고, 지나 갈때  
 마다 기차를 울렸지만 내게는 꼭 1달만 기차소리가 부

- 1. 나도 모른 날이요, 지금은 늘산을 할분!?
- 2. 왔어, 왔어, 왔어, 왔어?
- 3. 1963年度型 부락 카오
- 4. 반문 년들의 전려 카오
- 5. 작은 침, 큰길 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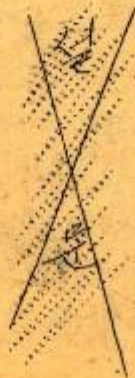
6. @ Dook Kaug @ White Lilly @ 3x6=9  
 7. 平行線의 交叉點

Handwritten signature and not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ing the name '김민준' and some illegible scribbles.

(110)

더섯 갈았다. 벌이 쏟아 질듯이 추풍이 부는 밤이었다. 서  
리천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원두막에서 잠을 잤다. 호자  
자아는 조금 떨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강수를 잊지도 해  
보며 집안 식구에게 같이 크다고 칭찬도 들은적 如何間에  
나는 호자서 원두막 잠을 잤다. 밤도 어지러워 잠이 없었다.  
"카포니카도 실종이 나서 옆에 내 단치고 모기장 밖으로 벌  
판 처다 보고 있었다. 벌 하나 하나에 두근지 보를 어느  
"女の微笑를 보며 나눈 슬며시 잠이 들었다. 열마나  
잠을 자 잠결에 소리를 듣자마자 벌들이 흔들자리는 소리가  
어질것처럼 들리었다. 갑자기 산성이 예민해졌다. 땀이 뭉치  
떨었다. 몇놈이나 될까? 속으로 삼각하며 신경을 곤란해 모  
았다. 바삭-바삭-바삭-소리를 보자서는 하나인것 같  
았다. 나는 "푸렛쉬"를 들고는 뛰어내릴 차비를 했다. 아들이 눈  
에 띄어가자 덩굴을 헤치며 하나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  
다. (그 까질것 하나뿐이다) 나는 만도 많이 "푸렛쉬"를 켜면서

1 두마리를 다 잡으려고요  
살도 안 바쳤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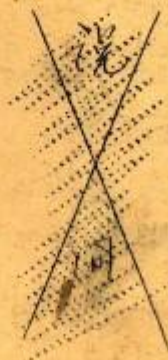
2. 허리띠는 20리질 (당일 실망)
3. 속가사는 2회
4. 뽕송이를 없애다
5. 아령 두리 잤어야지요
6. 화백이, 들꽃아래 벌집 100 }
7. 시골에 잡은 자리가 없네요

눈  
동  
}

원우막에서 쉬어 내렸다. 순간 스텝자가 죽었다는 것이  
 되었다. 그래도 불을 버리며 쫓아갔다. 스텝자 스텝자근벌  
 뒤 앞이 나으니 달리기 작정했다. 도망 가는 것을 보자 온  
 몸에서 땀기가 심아났다. 다리가 너무 뻘뻘지만 도망가  
 는 자도 뻘뻘다. 밤에 밝아 우수리 탄지는 잡외 소리들을  
 으며 전사르 쫓아갔다. 밤을 거역다 나와서 스텝자가 버린  
 사에 피꾸라지듯 넘어졌다. 순간 발 밑에서 무엇인가가  
 찔리는듯 했다. 여자였다. 내가 쫓아오면 그냥 옆으로  
 있는 그의 머리를 움켜 주었다. 머리가 질게 손에 잡혀  
 왔다. 얼굴은 돌아서 'Flask'로 바꿔보니 피에 젖은 얼  
 굴이 공포에 비늘 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이 영이었다.

도둑을 잡았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어떤 애들한테서 그  
 의 얼굴 상처에 '마쿠를'을 발라 주면서 가는 그의 얼굴이  
 사십 여백처럼 보이듯 눈내 느껴지는 감촉에 스스로  
 얼굴이 붉어짐을 두려워 못했다. 그녀의 집은 잊어지니

1 時時際을 바라보고 - 글씨



- 2 別名展示회
- 3 불을 아꼈다든 入身數
- 4 1지 부근의 5라4---
- 5 徒手休操
- 6 用 用 用 用 用 用 用 用
- 7 마음 먹은대로

李  
 湖  
 新

(112)

가난했다. 그래서 아픈시 나머지 밤의 침외 먹고 싶다는것을  
애만 태우고 있다가 큰 마음먹고 침외를 흔들어 나왔다는  
그녀의 표정에 나는 짐작하여 침외를 한 광우리 다 주기  
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일제의 꽃은 나를 불려오다 수집은 일곱에  
미소를 지었고 스물셋 마다 내 마음은 이상스런데 들뜨고  
했다. 꽃은 中學校를 中退한 處女였다. 피난은 후로 가  
나빠가는 실랑이 自退中退를 했다는 그녀의 기록에서 보  
다 나는 차차로 그녀에게 하자는 내 이상한 마음을 의뢰  
치 못했다. 밤마다 음을 타서 그녀는 천우악에 놀러 왔  
다. 향나 소설이니를 그녀는 꽤 많이 알고 있었고 製作  
도 많이 하고 있었다. 방학이 끝날때까지 나는 순결 1대  
로 나는 그녀를 데 왔으며 그녀 또한 내게 친 오빠 이  
상의 친절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그 날은 달 밝은 밤이었  
다. 천우악에 놀러온 꽃을 다로 슬과도 같이 文學야기를  
해다가 문우 나에게 말했다.

- 1 2대 가다. 만시지만
- 2 아아 꽃이 아파 그만입니다
- 3 ① 사랑의 노래 ② 동양적인 여성이  
아라 ③ 1. 10대들의 후배의 소위
- 4 꽃은 살지 않는다
- 5 人稱員으로 사해유유리 향취 단 신의향
- 6 ① 아찔러섯 자라 ② 장미 ③ 29
- 7 사랑 팔자 5分芳

{  
살  
문

술  
의  
향



<이젠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소녀의 오빠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기 싫은 시골집도  
 병환이 되면 재빨리 내려갔다. 꽃을 보고 싶은 단호관 마  
 읍에서 下鄉한 것 이었으나 집에서 이제야 귀서 짐짓을 알  
 게 되나 보다고 대전스런 운 날을 했고 등리에 사는 소녀  
 석이 아직 덜 귀서 엄마 것을 빨리 지랄해도 빨리 오빠가  
 보다고 반 놀림조로 농을 했다. 집에서 부어라 하면 나는  
 꽃을 만나 그와 얘기 하느라 밤이 즐거웠다. 이러한 막연한  
 즐거움과 보라빛 광기를 뒀던 나중에서야 알겠지만

<오빠! 방학이 가까워지면 자꾸만 생각이 나다. 꽃어도  
 가끔 오빠의 웃는 얼굴이 나타나곤 해요>

꽃이가 마치 신기하다든듯이 이런 말을 지껓는 때면 (꽃  
 이도 신기해; 하고 나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신기한 듯에  
 다시 그의 시를 사찰한 눈과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곤 것  
 이었다.

<오빠! 톨스토이(Lee Tolstoy)의 부인은 아주 상사였대요>

- 김  
 은  
 주
- 1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생활하는 것보다  
 좀더 리얼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 2 허락된 문화고 주제 유상으로 살아 끌려와
  - 3 착실한 여성으로 정서적 생활은 배우고 있는 여자
  - 4 결사적 양심 신념 지키기 위한 노력
  - 5 라디오 듣기
  - 6 10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
  - 7 장래를 염두에 둔 아이 키우기

(114)

씨 Tolstoi가 암장시에 쓴 자기열애 부인이 못 오게끔 유언  
을 했대지요?)

내가 모르는 이러한 소리까지 하고 했다. 서로 떨어져있  
을 때에는 片紙 函장 보며 주시잖은 마음만 훑어가 했으  
나 내가 이런 문제를 스물 셋살라 치면 소는 아주 근사  
하게 내 풀음을 물리쳤다.

<서로 소식 모르는 공금장에서 지낸다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지요?>

<----->

<1월은서 서로 손실할수 있는 여섯달도 생기고 -->

<1월 아주 2 3 주회 안 만났다가 만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1천 또 의미가 틀리죠 >

<어떻게 틀리지? >

열이 나니 풀을라. 치면 1천 생1래 웃어 넘치기만 했다.

어쨌든 간에 :너와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약속이나한

듯이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고 맞다면 의례히 나쁜 괴물

- 1 방도래 개걸
- 2 인내의 절점이라고 느꼈을
- 3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
- 4 졸업후에 알려냈습니다
- 5 일과를 걱정
- 6 친구의 안쪽을 느낄수있 forget not me
- 7 未知數
- 8 昔은 계몽사업

차  
薰  
緒

꽃을 삼가지 않고 그에게 왜 안했느냐고 따지기가 일수였다. 꽃을 알고 저를 세번이나 지난 여를 방밖에서 봤다. 꽃을쳐 마다 짐달 볼라노도록 처녀타가 나 그녀를 처음보고 나는 한동안 떠나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때와 달라 밤에 원수위에 불려 왔을때에 그녀는 자꾸 손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가 결심을 관듯이 팔 걷어져것이었다.

<오빠! 나 — 나 이 — 세 結婚래요 > 하고

<무엇? 結婚을? >

나는 그말에 놀라시피 놀랐다.

<네! >

<아니, 무슨 結婚을 — 누라고? >

<뭐다른 차<sub>차</sub>事<sub>事</sub>完<sub>完</sub> 아을래요 >

<青秀! 아니 結婚이라니 —? >

나는 심한 머리를 핑 인어 맞은것 같았다. 내가 되었으니까? 結婚하겠고, 그러나 이상할것은 그러나 없지만 이래 까지 꽃을 내 마음 어느 곳에 담겨두고 광상 거기

- 1. 아내력을 거고리 승자가 되리라.
- 2. 혼자서 자외 하은일
- 3. 덕성이 풍부한 다라
- 4. 當時及危<sub>危</sub> 歲<sub>歲</sub>月<sub>月</sub>不<sub>不</sub>待<sub>待</sub>人<sub>人</sub>
- 5. 변한 고은<sub>은</sub>일 위
- 6. ① 막걸리 ② 落木寒<sub>寒</sub>天<sub>天</sub> ③ 너홀로피었네
- 7. 高<sub>高</sub>誠<sub>誠</sub> ④ 突破<sub>破</sub>가 急先<sub>先</sub>聲<sub>聲</sub>

날  
은

꽃  
은  
의

(116)

에 많은 꽃 만을 생각하며 보내온 내 생각에 소녀의 숨  
흔이진 확실히 달라진 것이었다.

<네이! 거짓말이지? >

<정말이에요 오빠한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

말까지 있어서 다시 돌아 보았지만 역시 정말이라고 꽃  
은 고개를 더욱 숙여진 것이었다.

<그럼엔 나 아씨란 말이야? >

마음속에 있던 말이 기어오 터져 나왔다. **네!** 불알듯이  
꽃의 얼굴이 비쩍 들쭉거리고 그의 두눈이 사뭇 나를 쏘아  
보았다.

<나쁜 아씨란 말이야? 꽃이! 너 — 너 — >

내가 라듯이 말이 나오지를 알았다.

<오빠! >

<꽃! 너 — 나는 너를 — 나는 너를 사랑해 왜 숨쉴라고  
말하냐고 — 나라고 사랑해, 나라고 >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아서 사뭇 흔들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그 만치나 꽃을 사랑하고 있  
었다. 의심되리 만치 나는 흥분에 떨고 있었다)

<오빠! >

꽃은 "응" 하고 느끼어 울며 내 무릎에 얼굴을 붙였다. 어  
깨를 흔들리며 울었다.

<오빠! 저도 오빠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늘 등심처럼

만 대했잖아요, 사랑과다. 할 것 다 없었어 - 벌써  
사주까지 보낸걸요 오빠는 볼 사랑 말도 안하고 --- 그러  
고 정희도 있고 --- >

1 뿐이었다.

나는 원두약에다 뒀어 버려와 캄캄한 시골길을 넘어가듯 달  
려 왔다. 차라 이성이 회복되자 차가운 체념의 마음을 느  
렸다. 관고관 시골 노인들에게 슬픈의 사랑을 가지고 이리  
사주까지 보낸 약혼을 파기 시킬수는 없다고 그리고 영을  
사랑과다. 1 차차가 다의 내게는 죄악이라고

(내게는 아련의 부도남이 정희준 약혼녀가 있었던 것이다  
1 것이 정희였다)

마음을 수습해 가지고 원두약에 다시 갖출테니 혹은 이미  
없었고 그녀가 수고한것인지 바랄간 - 생기만 남아 있었다.  
내들은 밤에야 후회느리 것이 있었고 ---

x x x

가운살 부라 부라 노숙한 나는 자식은 방북하여도 집에 나

- |                                      |   |                |                                 |
|--------------------------------------|---|----------------|---------------------------------|
| 신<br>1<br>2<br>3<br>4<br>5<br>6<br>7 | 1 | 셋은기 쉬로를 살아 불려  | 1<br>2<br>3<br>4<br>5<br>6<br>7 |
|                                      | 2 | 그러나 지루은 신세. 따분 |                                 |
|                                      | 3 | 희. 노. 애. 렵 ?   |                                 |
|                                      | 4 | 동간 3살남         |                                 |
|                                      | 5 | 년파이 파르르 슬슬후    |                                 |
|                                      | 6 | 수목은동           |                                 |
|                                      | 7 | 50화재리 3자       |                                 |

(118)

러 가지 알았다. 이미 다섯번이나 때가 바뀌었지만 짐이 그럴  
사도 버리지 않았다. 소녀가 시집을 갖는지 안갖는지 알리고  
내지도 않았다. 단지 그나마 처한 모든 일을 자신의 팔로  
들러 버리고 공부만 했을 것이다.

X X X

기적 소리에 열게 되고 모퉁이에 앉혀진 꽃 이었다면 이렇게 보  
는의 나라는 밤. 기적 소리가 울려오는 밤 이면은 (나의  
죄악이랄까?) 나의 자라난 거 바란 꽃. 이가 생각 나게 되고  
그것을 생각 끝까지 따라 나간 현상이 의미인 내 자식을 위한  
한 보기도 해준 것이다

— 118 —

11월 1일

세계에 있어서 과학의 관능은 동양의  
결론대로는 부용으로 끝나는 수가 있다

— S 스미스 —

- 신
- ① 광고관의 이상한 매력
  - ② 광을 갖을 때
  - ③ "아름다운"이란 이름의 여성
- 분
- ④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시오
  - ⑤ 대문 밖에서 호흡관 정도
  - ⑥ 공복을 채워 주는 떡, 진달래 3.3
  - ⑦ ?

남  
승  
우

## 母校의沿革

| 年月日          | 事項                                                                                              |
|--------------|-------------------------------------------------------------------------------------------------|
| 4284, 12. 1. |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大韓速記高敎<br>術學校를 釜山市 空水洞 三街 五十五番地<br>(國會事務所)에 設立함<br>設立者 故 朴鍾萬 事務總長이 初代校長으<br>로 就任함 |
| 4285, 11. 30 | 本校 第一回 卒業式을 舉行함. 卒業生 37名                                                                        |
| 4286, 10. 1. | 國會遷都에 따라 本校를 서울特別市<br>鍾路區 古宗路 一番地(中央)으로 移轉開校함                                                   |
| 4287, 3. 25. | 本校 第二回 卒業式을 舉行함. 卒業生 21名                                                                        |
| 4287, 5. 30  | 國會事務所 移轉에 따라 本校를 서울特別<br>市 中區 太平路 一街 六十五番地(國會事務所)에<br>移轉開校함                                     |
| 4287, 6. 16  | 故 朴鍾萬 校長 辭任함                                                                                    |
| 4287, 6. 17  | 金用兩 事務總長 第二代 校長으로 就任함                                                                           |
| 4288, 1. 25  | 金用兩 校長 辭任함                                                                                      |
| 4288, 1. 26  | 崔瑛宇 事務總長 第三代 校長으로 就任함                                                                           |
| 4288, 3. 21  | 本校 第三回 卒業式을 舉行함. 卒業生 23名                                                                        |
| 4289, 3. 20  | 本校 第四回 卒業式을 舉行함. 卒業生 30名                                                                        |

|            |                         |
|------------|-------------------------|
| 4290, 3.12 | 本校 第五回 卒業式を 挙行す 卒業生 31名 |
| 4291, 3.4  | 本校 第六回 卒業式を 挙行す 卒業生 32名 |
| 4292, 2    | 崔珽宇 校長 辞任 す             |



### 教職員名簿

| 職名   | 姓名    | 担当科目 | 倚存     |
|------|-------|------|--------|
| 校長   | 程 璉 宇 | 訓 育  | 事務總長   |
| 副校長  | 鄭 泓 奕 | "    | 事務副次長  |
| 校 監  | 李 鎬 振 | "    | 議事局長   |
| 庶務主任 | 金 震 熙 | 國 語  | 速記課長   |
| 教務主任 |       |      |        |
| 學生主任 | 高 在 珮 | 法 律  | 法制調查局長 |
| 訓育主任 | 申 鉉 經 | 政 治  | 國會圖書館長 |
| 教 師  | 金 鎮 基 | 速 記  |        |
| "    | 鄭 源 道 | "    |        |
| "    | 張 惠 根 | "    |        |
| 講 師  | 金 昇 鎮 | 經 濟  |        |
| 庶 務  | 金 鏗 瑛 |      |        |



· 穢想자로 原移를 많이 보내 주셔 기쁘 悲鳴을 울렸습니다.  
紙而因休로 감히 加筆하고 全載치 못한점 그리고 장중  
간세 구미가 되어 粗濶하였음을 같이 사과드립니다.

流産날변改인 沈波의 親생재아들. '流産은 天理를 拒逆  
하는것' 이라기에 產母는 陳痛을 참아야만 했다. (高)

黃義鎮兄의 대머리도, 그리고 顔보의 陳계장도 반박했다.  
의산부리는 K兄도 초라가 잘 어울리고 있었고 변이여  
나오는 관음소리와 죽경외자의 여운도 사라졌다요 (折)

系移를 돌려니, 總記文字가 아쉬어졌다.

人類를 "文字의 奴隸"로 부러 대방시키자... 되었다. (鄭)

박박. 박박. 짹. 짹. 어려운 고비도 지났으니 삼배연기  
라고 고이음이 잦아오오. P.形 같이 가려하오. (KS)

큰 소리치던 學報가 변치못하여 편집권의 한 사람으  
로써 죄송함을 올립니다. (金眞)

끝으로 편집위원의 광방을, 학생일등을 대표하여 감사  
하며 학생회 일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光典)

